

통신사에 클라우드까지 뚫다, 판 커지는 ‘사내용 AI’ 시장

공공기관 등 AI 수요 급증

정보기술(IT)기업, 통신사, 시스템 통합(SI) 기업들이 일제히 인공지능 전환 (AX)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껏 서로 다른 시장에서 성장해, 경쟁상대가 아니었던 기업들이 AX라는 하나의 ‘링’에 헤쳐모이며 진검승부를 벌이는 모양새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AX 시장은 이들 3개 영역 기업들이 모두 뛰어든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AX는 인공지능(AI) 모델을 자사 시스템에 도입하고 싶은 기업·기관 대상으로 이 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이다. 공공AX 분야가 가장 뜨겁다. 지난달 23일 LG CNS는 380억 원 규모 경기도교육청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삼성SDS, KT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경쟁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에선 LG CNS-NHN클라우드 컨소시엄, KT-KT클라우드와의 경쟁을 뚫고 삼성SDS-네이버 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전통적인 사업영역 상으로 경쟁할 일 없었던 이들 기업이 AX

AX 시장 뛰어든 기업들		
분야	회사	주요 사업
SI	삼성 SDS	생성 AI 플랫폼 ‘패브릭스’, AI 에이전트 ‘브리티시 코파일럿’ 구축
	LG CNS	AI 플랫폼 ‘덱젠’ 고도화
IT	네이버	AI 솔루션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 협업툴 ‘네이버웍스’ 구축
통신사	SK텔레콤	SK AX와 AI 에이전트 ‘에이닷 비즈’ 개발
	KT	MS와 손잡고 맞춤형 솔루션 제공
	LG 유플러스	AICC 고도화



IT 활용 부족한 기업들에 ‘AI 설치’ LG CNS 등 SI기업 중심서 지각변동

네이버는 AI 모델이 기업자료 학습 SKT, 회의기록 검색 등 AI비서 개발

시장에 모여든 이유는 성장 가능성이 커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지난달 8일 공개한 ‘AI 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의 AI 도입률은 2023년 기준 6.4%로, 2.8%였던 2018년보다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제

조업 비율이 높아 서유럽 등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산업에 AI를 도입한 비율이 낮다”며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시장분석 기관 IDC코리아도 지난 1월 “올해 국내 조직의 60%가 특정 비즈니스 기능을 위해 개발된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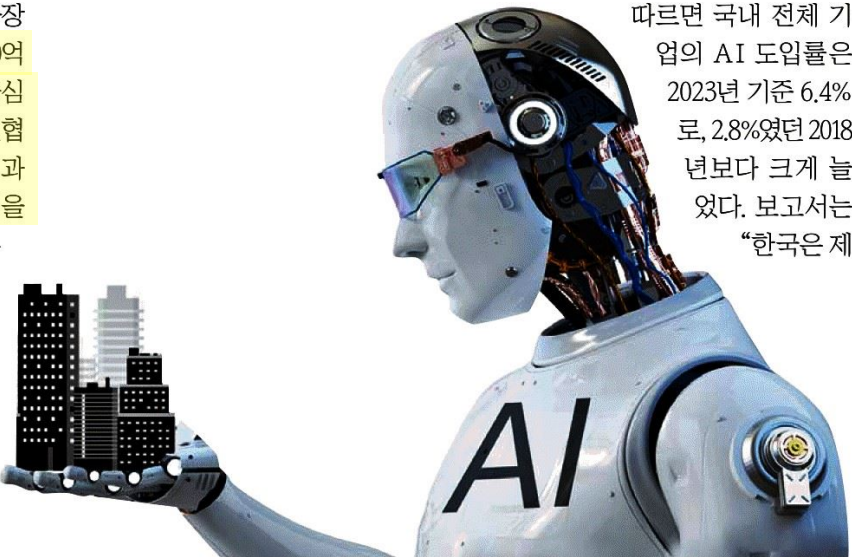
각 영역 기업들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협업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SI 기업들은 기존에 회사 IT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이용한다. LG CNS-삼성SDS가 공공 AX 시장에 적극적이다. 지난 1월 대기업이 공공 IT 사업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던 제도가 완화되면서다. SK C&C는 지난달 사명까지 SK AX로 변경했고, SKT와 협업해 회의 기록 검색

이나 인사·홍보·법무 등을 돕는 사내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비즈’를 개발 중이다. SK그룹사를 중심으로 먼저 보급한 뒤 B2B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네이버(하이퍼클로바X)와 LG(엑사원)처럼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확보한 기업들은 이를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자사 AI 모델에 기업 데이터를 학습시켜 파인튜닝한 뒤 해당 기업만의 AI 솔루션을 만들어 주는 형태다. 사내망과 연동한 네트워크를 기업 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 LG CNS의 금융AI 플랫폼 등이 그 예다.

새 먹거리를 찾는 통신사들은 통신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AI고객센터(AICC)를 내세우고 있다. SKT는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 ‘SKT AI CCaaS’를 개발해 고객사에 제공한다. KT도 AICC 솔루션 ‘KT 에이센 클라우드’ 상품을 제공하고, 의료·제조 등 전문 분야로 대상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 구축해준 상담센터에 상담사가 답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AI 상담 어드바이저’를 도입했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간 거래(B2B) 분야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



인텔, 포스코DX와 AI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 협력

인텔 AI 서밋 서울, 280곳 참석

인텔이 국내 기업과 인공지능(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인텔 반도체 칩을 활용, 다양한 AI 서비스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인텔은 지난 1일 개최된 '2025 인텔 AI 서밋 서울'에서 포스코DX와 AI 생태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텔 제온 프로세서의 AI 가속 기능과 AI 개발 툴 오픈비노 기술을 활용, 포스코DX의 AI 서비스 비용 효율을 높이고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인텔 AI 가속 기인 '가우디'를 KT클라우드 AI 인프라에 도입하고 AI 추론에 특화된

서비스형GPU(GPUaaS) 상품 출시를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한스 창 인텔 세일즈 마케팅 그룹 아시아태평양·일본 총괄은 "인텔은 AI PC에서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스마트팩토리까지 한국의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AI로 인해 모든 산업이 혁신하는 여정 속에서, 인텔은 한국 파트너들과 소통하며 함께 혁신과 성공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280여개 기업 및 기관에서 900명이 참석, AI 기술 최신 트렌드와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AI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노보·네이버클라우드·SK하이닉스·텔·마이크로소프트(MS)·삼성

SDS·슈퍼마이크로·시스코·HPE·LG이노텍·LG전자 등 국내외 주요 협력사와 KAIST·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학계 및 공공 부문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우석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파트너 세션 발표에서 AI 컴퓨팅 시대를 맞아 맞춤형(커스텀) 메모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텔과는 데이터센터용 솔루션의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전략적 파트너 세션 발표자로 나선 김유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는 인텔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이라는 두 축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KT DS, 코딩없는 기업시스템 AX 실현

‘비스트’에 AI 게이트웨이 추가

KT DS는 자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게이트웨이 솔루션 ‘비스트’에 ‘인공지능(AI) 게이트웨이’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AI전환(AX)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비스트는 기업 내부 시스템 간 연동뿐 아니라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외부 서비스 간 데이터 요청과 응답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API 관리 솔루션이다.

회사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 제품 대비 30% 이상 빠른 데이터 처리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해왔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커스텀 API 개발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했고 굿소프트웨어(GS) 인증 1등급도 획득했다.

새로 추가된 ‘비스트 AI 게이트웨이’는 커스텀 API 및 모델컨텍스트프로토콜(MCP) 기반으로 기업 내부 시스템의 API와 데이터를 별도 개발 없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AI에이전트와 연동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계 최초로 드래그앤드롭 방식으

로 내부 API·데이터를 AI에이전트에 연결하며 비즈니스 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KT DS는 강조했다.

KT DS는 비스트AI게이트웨이가 이 과정에서 각각의 API를 외부에 직접 노출하지 않아 보안에도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AI 사용량 제어, 운영비용 절감, 처리속도 향상 등 다양한 효과도 제공한다. 중복 프롬프트 요청에 대해 게이트웨이에 저장된 이전 응답을 재활용해 빠른 응답이 가능하며, 여러 AI API의 사용 현황과 예산을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

KT DS는 이로써 금융·제조·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응대·문서작성·자동분석 등 업무혁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우 KT DS 기술혁신단 상무는 “AI게이트웨이가 추가된 비스트 솔루션은 AX시대에 내부 데이터와 외부 AI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AI를 통해 비즈니스를 쉽고 빠르게 확장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하이퍼클로바X 씽크〉

“네이버 독자기술로 만든 추론형 AI 모델 다양한 AI 비서 서비스 실현 전환점 될것”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AI 총괄
“소버린 AI 핵심인 한국어 능력 우수”

“서부 개척 시대’처럼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AI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치킨 게임이 시작된 가운데, 네이버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추론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씽크’가 다양한 AI 에이전트(비서)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네이버의 추론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씽크’(HyperCLOVA X THINK) 개발을 진두지휘한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 총괄(사진)은 1일 동아일보와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올 3월 LG AI연구원이 공개한 ‘엑사원 딥’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추론 AI다. 성 총괄은 “이번 추론 모델이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과정을 되짚어 오류를 보완하는 사고 기반 구조를 갖춘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추론 모델 개발 경쟁에선 늦었지만, 한국어 이해력 측면에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오픈AI의 GPT-4o와 비교해 지시 이해 및 수행 능력 등 일부



추론 작업에서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특히 한국어 이해력에서는 앞선 성능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성능 벤치마크인 코발트(KoBALT)-700을 기준으로 하이퍼클로바X 씽크가 48.9점을 기록해 LG의 엑사원 딥(33.0점), 알리바바의 QwQ(32.4점) 등 300억 개(30B) 이상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가진 대형 모델과 비교해 15점 이상 높았다.

이 같은 한국어 경쟁력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적인 ‘소버린(sovareign·주권) AI’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지난달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대통령실 초대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네이버가 강조해온 소버린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 수석과 손발을 맞춰온 성 총괄 역시 소버린 AI에 대해 “AI는 우리만의 자생 능력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자국만의 데이터·인프라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AI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미중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이른바 ‘빅브러더’(감시체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미중 빅테크가 민감한 우리나라의 국방, 의료, 법률, 행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 분야 만큼은 로컬 플레이어가 챗GPT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길찾기 그 이상... AI 품은 네카오 '맵부심' map

네이버, 장소 추천 고도화... 탐색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카카오, 대중교통 정보 시각화... 개인 취향 맞춤추천도 구글·애플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선제적 대응전략 분석



도 강화하고 다국어 번역, 예약·결제 연동 등 커머스 기능도 확대했다.

카카오맵도 지도 고도화에 나섰다. 이날 카카오맵은 이용자 개인 취향에 맞춰 맛집 등을 추천하는 'AI메이트 로컬' 기능을 출시했다. 최근 뚜벅이 여행자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실시간 교통 데이터 기반 '조정밀 열차 위치보기'와 '버스 예상시간표' 기능이다. 대중교통을 찾아보다 불편하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카카오T와도 연동했다. 소상공인을 돕는 '동네맛집 응원할지도'와 '맛집 랭킹', 전문가 검색·예약이 가능한 '전문가 프로필' 기능도 추가했다. 하반기에 공개할 카카

오의 AI 메이트, '카나나'와 연계도 준비 중이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의 슈퍼앱 변신은 구글 지도 견제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정부는 구글의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골목길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고정밀 데이터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문제로 반출이 금지됐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지속돼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선제적으로 지도를 고도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구글 지도가 고도화해도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의 편리한 기능에 익숙한 소비자라면 기존 앱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장소, 경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있다. 블랙핑크와의 콜라보레이션도 그 일환"이라며 "우리 앱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다른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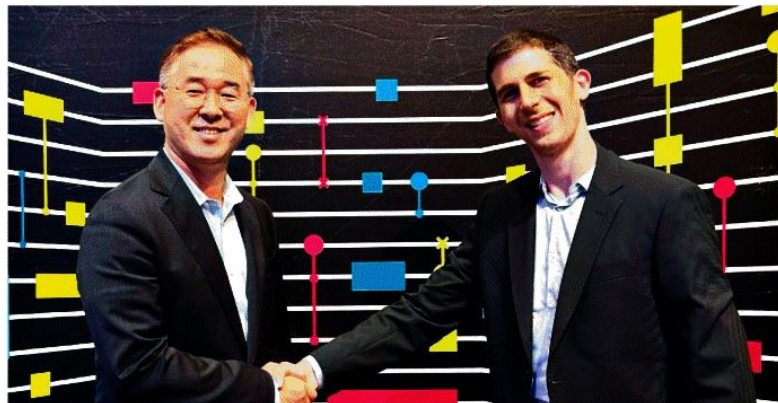
2일 온라인상에는 네이버지도가 와 이진엔터테인먼트와 함께 3년 만의 블랙핑크 컴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것이 화제가 됐다.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지도를 열면 첫 탭에 'BLACKPINK'(블랙핑크·사진)가 나타났다. 이를 누르면 'PINK AREA'로 표시된 장소 4곳이 뜬다. 고양종합운동장, 세빛섬, 반포대교, 남산서울타워다. 오는 5일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서울시 곳곳이 블랙핑크의 컴백을 기념하는 'PINK AREA'로 바뀌는데 네이버지도가 이를 표시하며 길 안내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지도가 노리는 효과는 크게 2가지다. 블랙핑크 컴백을 기대하는 해외 팬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이버지도는 '블랙핑크 성지'를 안내함으로써 앱(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동시에 기

존 고객들에겐 네이버지도만의 특별함을 인식시켜 '록인(lock-in·자물쇠)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외국인 이동 데이터 확보는 덤이다.

네이버지도는 최근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며 '슈퍼앱'으로 거듭나고 있다. 슈퍼앱은 하나의 앱 안에 여러 기능·서비스를 통합해 해당 앱만으로 다양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네이버지도의 가장 대표적인 차별화 기능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발견' 기능이다. 사용자 위치 근처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실시간 업데이트해 보여주고 과거 활동과 검색이력을 바탕으로 좋아할 만한 장소, 근처 핫플레이스, 주변 쿠폰 등 '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AI를 통해 도착시간 예측, 주행기록 기반 목적지 자동추천 등 맞춤형 내비게이션 기능



김동호 메가존클라우드 부사장(왼쪽)과 니르 미네르비 클래스큐 최고경영자(CEO)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했다.

메가존클라우드, 양자컴 대중화 앞당긴다

양자 SW기업 클래스큐와 협력 클라우드·알고리즘 역량 결합

메가존클라우드가 양자 소프트웨어 기업 클래스큐와 양자컴퓨팅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국내 양자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양자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공동 고객 프로젝트 수행 △하이브리드 컴퓨팅 구현을 위한 기술 통합 등에 협력한다. 실증형 기술검증(PoC), 맞춤형 워크숍, 기술 커뮤니티 연계 등으로 산업 수요 기반의 양자 생태계 확장도 추진한다.

클래스큐는 고수준 양자 프로그래밍 언어 Qmod와 다수 양자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딥 컴파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비전문가도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실행하도록 지

원한다. 이번 협력은 메가존클라우드의 '아시아 최대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허브' 전략과 맞닿아 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양자 플랫폼 '아마존 브래킷' 기반 서비스로 국내 기업의 양자 컴퓨팅 접근을 지원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래스큐의 고도화된 알고리즘 설계 플랫폼을 자사 클라우드 역량과 결합해서 국내 기업의 실용적 양자 컴퓨팅 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호 메가존클라우드 최고양자책임자(CQO)는 "클래스큐와 협력은 양자컴퓨팅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산업 현장의 실질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고객이 양자 알고리즘을 쉽게 설계·적용하도록 지원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선도적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쿠팡, AI 인프라 '출사표' 클라우드 시장 본격 참전

고성능 AI 필요한 기업 타깃
"기업 고객 영입에 박차"
정부 GPU 사업에도 도전장

쿠팡이 국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AI 활용 및 개발을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다수 필요한 기업을 타깃으로 잡았다. 쿠팡의 롤모델로 꼽히는 아마존의 사업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은 2일 기존 AI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쿠팡 인텔리전트 클라우드'(CIC)로 리브랜딩하고 본격적인 고객사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쿠팡 내부 서비스와 외부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에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쿠팡 관계자는 "그동안 쿠팡 서비스 개선과 운영에 AI 인프라를 활용해왔다"며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로서 클라이언트 영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서울 양재동의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용량 전력 시설을 확보하고 이중화 전원구조, 다중 통신 지원, 물리보안 체계 등을 갖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역 기업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서비스 지연 시간도 최

소화했다. 고성능 GPU를 다수 구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성능 AI가 필요한 기업에 여러 GPU 서버를 묶어 대규모 처리용량을 확보하는 자체 클러스터링 방식을 적용했다.

쿠팡은 그동안 직매입(로켓배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쿠팡플레이) 등에서 아마존 사업 모델을 다수 차용해왔다. 이번 클라우드 사업 진출 역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사업 전략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클라우드 부문을 육성해 AWS와 같은 '개시카우'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1분기 AWS 영업이익은 115억달러로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184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쿠팡은 최근 정부가 GPU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GPU 확보·구축·운용 지원 사업'에도 도전장을 냈다. 약 1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네이버, 카카오, NHN 등 국내 주요 CSP 기업들이 신청서를 냈다. 쿠팡만 대규모 CSP를 운영한 경험이 없어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쿠팡이 CSP 시장 진출을 알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은 정부 사업에 1만 개 규모 GPU를 확보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클라우드(1만4000개) 다음으로 큰 규모다. 배태웅기자

“소상공인 등 AI 무료 교육… ‘1인1 AI’ 시대 열 것”

이세영 뽀뽀테크놀로지스 대표

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하기 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한국 내 스타트업이 있다. ‘뽀뽀테크놀로지스(이하 뽀뽀)’는 2022년 7월 오픈AI와 네이버의 초기 AI 모델을 활용한 글쓰기 연습 지원용 서비스 ‘뽀뽀 트레이닝’을 출시했고, 이듬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가 CES에서 상을 받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세영(29) 뽀뽀 창업자 겸 대표는 “어렸을 적부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에 대한 동경이 있어 이들이 창업한 나이(24세)에 맞춰 창업했을 정도”라며 “2020년 오픈AI의 ‘GPT-3’ 비공개 테스트에 참여하며 처음 접한 생성형 AI 모델(GPT-3)은 큰 충격이었고, 기술 대전환기를 이끌 것이라 직감했다”고 말했다.

◇“엔진 개발보다 완성차부터 만들어야”

초기 AI 기업은 대개 언어 모델(LLM)부터 개발한 뒤 서비스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뽀뽀는 처음부터 서비스에만 집중했다. 뽀뽀 트레이닝 이후에는 여러 외부 LLM을 혼합한 AI 검색 포털을 만들었다. 이 대표는 “현대자동차 역시 처음부터 자동차 엔진을 만들진 않았다”며 “외부 엔진을 갖다 쓰더라도 우선 사람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차’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AI를 사용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사업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의 말처럼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AI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뽀뽀 역시 이런 AI 모델에 올라타 고속 성장했다. 뽀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벌써 500만 명 이상이다. 과거 ‘토스’나 ‘당근’보다 빨리 500만 고지를 밟았다. 이런 빠른 성장세 덕분에 올 상반기에는 국내 AI 서비스 기업 중 처음으로 1080억원의 투자금을 신규 유치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세영(29) 뽀뽀테크놀로지스 대표가 카메라 앞에 섰다. 이 대표가 2021년 창업한 뽀뽀는 ‘챗GPT’ 등장 전부터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내놔고, 이제는 월간 활성 이용자가 500만명이 넘는 AI 검색 포털로 성장했다.

챗GPT 등장 전부터 AI 서비스해 AI 캐릭터와 대화 유료상품도 출시
월평균 30억 매출 올려 급성장 중

AI 스타트업 ‘뽀뽀테크놀로지스’

창업 연도 2021년

본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창업자 겸 CEO 이세영(29)

대표 이력

-한국청소년학술대회(KSCY) 주최자
-연세대 문헌정보학과(휴학)

주요 서비스

AI 검색 포털 ‘뽀뽀’·AI 캐릭터챗 ‘크랙’

월간 활성 이용자

500만명 이상

누적 투자 유치액

1300억원

자료=뽀뽀테크놀로지스 등

◇AI 미래는 ‘도구’ 아닌 ‘동반자’

뽀뽀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10~20대이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의 AI 활용범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며 “뽀뽀 내 AI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절반 이상은

생산성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검색이나 코딩 같은 생산성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보다 심리 상담과 놀이 상대방 등 정서적 대상으로 여긴 이용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실제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가 지난 4월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람들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 1위는 ‘심리 치료·동반자’였다. 작년만 해도 1위가 ‘아이디어 생성’이었던 점과 대비된다. 이 대표는 “이제는 AI와의 감정적 결합을 이끌어내는 측면이 더 중요해졌고, 우리 AI 역시 이용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방식으로 설계하며 이용자 접점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명령어 입력이 없더라도 AI가 먼저 사람에게 메시지 알림을 보내거나, 평소 입력한 관심사 분야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 능동적으로 이용자와 어울리는 AI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사람들의 변화된 AI 활용 방식은 새로운 수익 사업의 기회가 됐다. AI 사용 경험 확대를 위해 그간 AI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온 뽀뽀는 작년 10월 말 이 되어서 수익 사업에 나섰다. 특정 성격과 고유의 기억을 가진 자신만의 AI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캐릭터챗(현 서비스명 크랙)’을 처음 유료 서비스로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연말에 캐릭터챗 서비스를 공개했지만, 작년에만 30억원의 연 매출을 냈다”며 “올해는 월평균 30억원의 매출을 낼 정도로 빠르게 사업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뽀뽀의 올해 목표는 이용자 1000만명이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 AI와 거리가 먼 사람들을 위한 무료 AI 교육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나 기업 직장인을 위한 AI 교육은 많지만, 지방이나 시장만 가도 AI 교육이 전무하다”며 “뽀뽀의 핵심 목표는 ‘1인1AI’ 시대를 여는 것만큼 하반기 내 초·중·고 학생과 소상공인을 위한 AI 교육 자료와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현 기자

전통시장 화재, AI가 감시한다

에스원 '화재 예방솔루션' 주목
연기·불꽃·온도 상승 자동 감지
즉시알림 등 24시간 대응 가능

“화재가 나기 전에 알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놓여요.”

전선 하나에 수십 개 점포가 얹혀 있고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이 길을 막는 전통시장은 불이 나면 손을 쓰기가 어렵다. 건집을 수 없이 불이 번져 피해가 커진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초기 대응이 핵심이지만 사람이 직접 불을 보고 연기 냄새를 맡았을 때는 이미 늦는다. 이때는 화재가 상당히 번진 상황이라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에 연기와 불꽃을 먼저 감지하고 자동으로 대피 방송까지 내보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CCTV'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재를 조기에 인식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85건의 전통시장 화재로 1387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57건, 주 1회꼴로 화



에스원 직원이 전통시장에서 AI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에스원 제공

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점포 밀집도가 높고 통로가 좁은 데다 노후 전기설비와 가연성 적재물도 많다. CCTV나 화재 감지기 등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정부와 지방정부도 반복되는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위험 부담을 나눠 인수하는 방식의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

단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를 통해 CCTV, 화재감지기, 방송 장비 등 공용 구간 안전 설비 설치 시 예산의 10%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와 장비 설치만으로는 화재를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지·경고하고 사람을 대피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함께 작동해야 초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화재 징후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대응까지 연결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이 새로운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스원은 이런 현장

상황에 맞춰 전통시장에 특화된 AI 기반 화재 예방 솔루션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연기, 불꽃, 온도 상승 등 화재의 전조를 AI가 스스로 인식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한다. 감시 인력이 없거나 화면을 계속 주시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도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초기 진압이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감안해 소방도로를 감시 영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위험구역 진입 알고리즘'도 적용했다. 차량이 감지되면 관리자에게 경고·알림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구조 차량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돕는다.

시스템 유지관리도 자동화됐다. CCTV나 녹화기 등 장비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자동 복구되거나 관리자에게 경고가 전송된다. 감시 체계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에스원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꼭 맞는 통합형 솔루션으로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AI 큐레이션 시대 ... 뉴스도 음악으로 들려준다

주요 뉴스 선별해 음성 변환
딱딱한 글은 팟캐스트로 쉽게
장문의 글 이미지 1장으로 요약
외국어 동영상은 한글 문서로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형식으로
“AI, 초개인화 콘텐츠 기획자”

인공지능(AI) 음악 스타트업 칠로엔의 조성인 대표는 매일 아침 생성형 AI 서비스 ‘퍼플렉시티’로 하루를 시작한다. 프롬프트에 ‘조간 뉴스 10쪽 지를 뽑아줘’라고 입력하면 퍼플렉시티가 조대표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기사마다 제목과 함께 세 줄짜리 부연 설명을 제시한다. 그는 음성변환기능(TTS)을 통해 요약된 뉴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신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이 생긴 그는 조간 뉴스에 관련 내용이나 오자 곧바로 또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인 ‘노트북LM’을 열었다. 소스 검색창에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한국은행이 경고에 나선 이유에 대해 알려줘’라고 입력한 뒤 잠시 기다리자 7분 분량의 AI 오디오 브리핑 파일이 생성됐다. 마치 경제 전문가들이 라디오 패널로 등장해 해설하듯 자연스럽고 체계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노트북LM은 두 명의 화자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팟캐스트 방식의 녹음 파일도 만들어준다.

조대표는 음악 스타트업 대표답게



요약한 뉴스를 ‘수노AI(suno AI)’를 통해 음악으로 만들어 운동할 때 듣는다. 원하는 음악 스타일을 지정하면 AI가 작곡한 음악에 뉴스 내용을 붙여준다. 조대표는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선별된 정보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발전으로 콘텐츠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바쁜 일상을 보내는 스타트업 창업가와 전문직 종사자, 직장인 사이에선 AI가 포문을 연 ‘초개인화 콘텐츠 큐레이션’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AI가 스스로 사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한 뒤 흩어져 있는 알짜 정보들을 모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재가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보를 텍스트 요약 수준으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 오디오 강연, 음악, 마인드맵, 시각화 이미지 등 사용자 맞춤형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글이 선보인 AI 기반 문서 분석 도구인 노트북LM은 전문가 토론 형식의 구조화된 브리핑을 생성해 정보의 맥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사용자가 학습하고 싶은 콘텐츠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면 AI가 오디오 강연과 정보 타임라인, 심지어 마인드맵까지 제공한다. 생소한 주제라도 노트북

LM을 활용하면 전반적인 흐름과 개념을 잡기에는 무리가 없다.

AI 기반 법·규제·정책 모니터링 스타트업 코딩의 정지은 대표는 ‘릴리스AI’와 ‘냅킨AI’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릴리스AI는 유튜브, 블로그, PDF 등 긴 영상이나 장문의 콘텐츠를 핵심 내용만 텍스트로 추려 보여주는 AI 기반 요약 서비스다. 냅킨AI는 복잡한 내용의 글을 이미지 한 장으로 정리해주는 시각화 도구다. 정대표는 “각종 산업 정책과 법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파악하고 시각화한 다음 추후에라도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 이미지를 ‘노션AI’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사 출신 전업 투자자인 정민규 씨는 AI 마인드맵 서비스 ‘웜시컬’과 퍼플렉시티를 활용해 투자 일지를 정리하고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한다. 그는 평소 금융분야 기사와 기업 리포트를 퍼플렉시티에 입력해 요약본을 먼저 확인한 뒤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선 전문가와 함께 AI가 달아놓은 부연 분석을 꼼꼼히 읽고 있다. 추세 분석과 투자 전략의 사고 확장에는 웜시컬을 이용한다. 정씨는 “웜시컬로 투자 인사이트를 흐름도처럼 만들어두니 복기하기 훨씬 쉽고 유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용이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초개인화 AI 콘텐츠 확산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와 블로그, 포털 등 정보 제공자가 정해진 형식으로 공급한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했지만, 이제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 스스로가 AI를 통해 콘텐츠 기획자이자 큐레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AI 콘텐츠 플랫폼 ‘업힐’을 운영하는 더플레이의 강범준 대표는 “AI 도구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하고 편집해주는 ‘맞춤형 브레인’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를 넘어 ‘지식 활용의 구조’ 자체도 바뀌고 있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기 기자

대학 “AI로 쓴 학생부 믿을수 있나” 고심

교사 70% “챗GPT 사용 경험 있다”
최근엔 ‘세특’ 작성 돕는 업체도 등장
대학들 “세특 내용 사실 확인위해
수시모집 면접 강화해 검증” 주장
“정부가 기재 지침 마련을” 지적나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학생부 사례		
생성형 AI 입력어	일본어 수업을 들었고 경청하는 태도가 좋은 학생	특별실, 쓰레기, 분리수거
AI가 만든 세특 문장	일본어 수업 도중 동료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다.	특별실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른 학생임.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 분리수거 철저히 해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줌.

“일본어 수업 도중 동료 발언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작성했다. ‘일본어 수업을 들었고, 경청하는 태도가 좋다’는 내용만 입력했는데도 수식어를 추가한 문장이 자동으로 생성됐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 학생부 마감인 다음 달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고교 현장과 대학에서는 AI를 활용한 학생부 세특 작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행정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AI를 활용해 세특을 작성하고, 대학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챗GPT로 쓴 학생부를 걸러내기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 AI로 학생부 작성 늘어

최근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과제와 동아리 활동, 수업 내용 등을 챗GPT 등 AI에 입력해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 늘고 있다. 수시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인 세특 내용을 두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잦아 교

사들이 세특 작성 업무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5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챗GPT를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70.1%였다. 최근에는 교사의 학생부 세특 작성 업무를 도와주는 AI 프로그램 제공 업체도 등장했다. 교육 플랫폼 업체 B사는 교사가 학생 활동 기록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AI가 세특 초안을 생성해 준다.

● ‘평가 흔들릴 수도’ AI 학생부에 대학 고심

대학은 입시 과정에서 세특 내용과 학생 역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사정관은 “지난해 입시에서 AI가 작성한 듯한 문체가 있어 챗GPT가 작성한 문장을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 보니 의심 사례 97% 이상 AI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학사정관은 “세특은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교사 언어로 기재했다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라며 “AI가 대신 쓰면 평가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부 세특 내용과 학생 역량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려면 결국 수시모집에서 면접을 강화해 직접 학생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돼 변별력이 약해진다. 이 때문에 AI로 학생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각 대학은 내년에 공고할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에 면접 강화 등의 대책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수시 불공정 요소를 없애겠다고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해 대학이 내신 외에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학생부뿐인데 학생부 신뢰도가 떨어지면 면접을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활용 흐름을 막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입시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 방식을 서술식에서 객관적인 활동 기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AI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AI로 학생부를 작성하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개별 대학이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라 정부 차원의 지침이 생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AI 도입으로 '혁신'... 첨단 R&D 장비 국산화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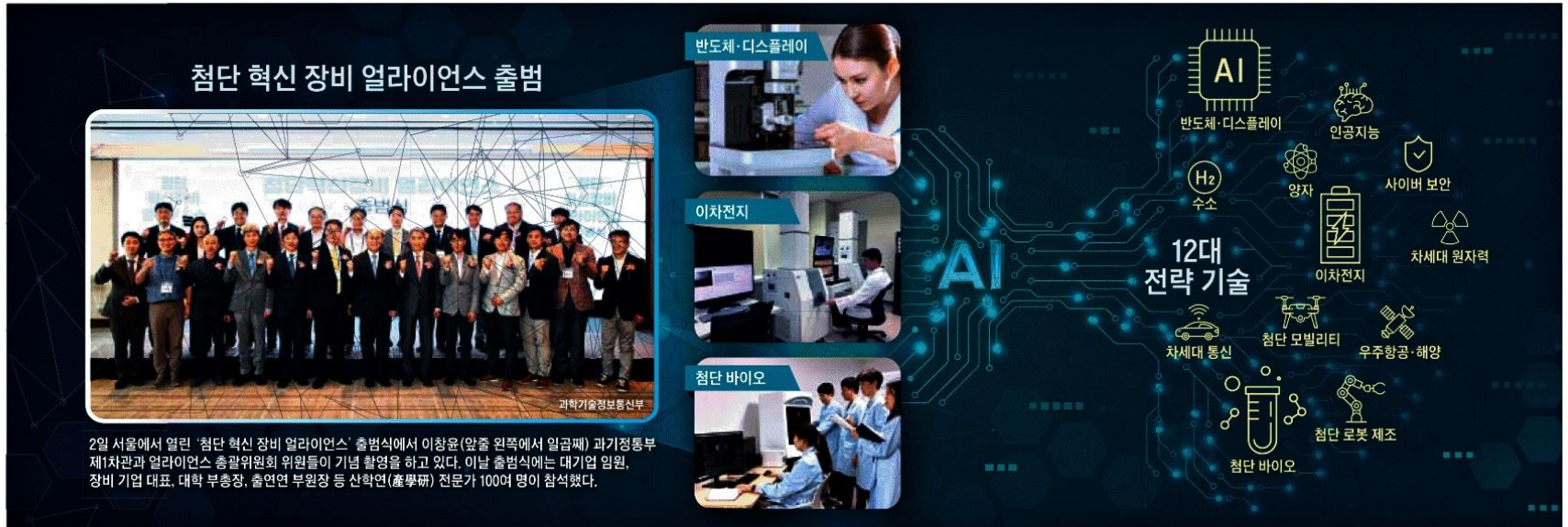
‘첨단 혁신 장비 얼라이언스’ 출범

국가 전략 기술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첨단 혁신 장비의 원천 기술 확보와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손을 맞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첨단 혁신 장비 기술 개발과 실증 및 검증, 상용화 등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 혁신 장비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대기업 임원, 장비 기업 대표, 대학 부총장, 출연연 부원장 등 산학연(産學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공학한림원 회장을 지낸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가 이날 출범한 얼라이언스 총괄 위원장을 맡는다.

◇AI 도입한 연구 장비의 혁신

첨단 기술 분야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첨단 R&D(연구개발) 장비 선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엔 연구 용으로 주로 쓰인 장비가 최근엔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는 원자 현미경(AFM)이 사용된다. 반도체 웨이퍼엔 고도로 정밀한 평판도가 요구되는데, 이때 AFM을 사용하면 표면의 아주 미세한 요철도 1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다. 생명과학·화학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질량분석기도 최근엔 OLED, LCD, QLED, 마이크로 LED 같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진공 작업실 내부의 잔류 가스나 누출된 불순물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장비들은 AI(인공지능) 도입으로 기술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를



상당수 연구 장비 외국서 수입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 정부 “국산 비율 점진적 확대” ‘혁신R&D장비기술센터’ 열어

통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외국 장비 의존 한계 뛰어넘는다”

국내 연구·산업 현장에선 주요 연구 장비 상당수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가 국가 R&D 사업을 통해 구매한 장비 가운데 국산은 31%에 그쳤다. 특히 주요 연구 장비의 경우는 국산 비율이 17%로 더 낮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국내 연구 장비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55~90% 수준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별 상위 20위 연구 장비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없다.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들을 수입에 의존하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된다. 최근 3~5년간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부 연구 장비는 가격이 너무 올라 도입을 포기해야 했다. 연구·산업 현장에서는 연구 장비가 고액인 경우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이 너무 오르면서 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과학기술계는 “필요한 연구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보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했다.

◇원자현미경 등 국산화 성공

정부가 ‘첨단 혁신 장비 얼라이언스’를 산학연과 공동으로 출범한 것도 이런 한

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다. 앞서 2021년 ‘연구산업진흥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제1차 연구 산업 진흥 기본 계획(2022~2026년)’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 연구 장비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020~2024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의 연구 장비 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파크시스템스의 광유도력 원자현미경, 토모코브의 비표지 3D AR(증강 현실) 현미경, 아스타의 2차전지 소재 열 및 가스 동시 분석 시스템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이끌었다.

또 올해 3월 과기정통부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혁신R&D장비기술정책센터’를 열었다. 과기정통부 연구산업진흥과는 “국가 전략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 국산 연구 장비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첨단 혁신 장비 얼라이언스’는 총 4개 분과로 구성했다.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3개 분과와, 연구 장비 생태계 분과가 있다.

권오경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첨단 혁신 장비 분야의 지속적 개발과 발전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장비 국산화를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연구 장비 국산화가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며, 과학기술 안보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진 기자

“지금은 육성이 우선”…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국정위·과기부 관련 개정안 가닥

美 빅테크 “AGI, 고영향AI 되면 한국 내 사업 차질 불가피” 우려
국내서도 워터마크 의무화 지적
경쟁력 저하 경고에 정부도 공강
규제 완화, 美 협상카드 될 수도

국정기획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규제 조항을 3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 이어 미국 빅테크들도 ‘고영향 AI’ 규정 등을 들어 한국 내 AI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AI미래기획수석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민간 전문가를 발탁한데서 알 수 있듯이 규제보다 진흥 중심의 AI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규제 유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와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내 규제만 3년 미루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상 AI 진흥 관련 조항만 우선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조항 시행일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 등 신뢰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다. AI를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와 ‘일반 AI’로 구분하고 고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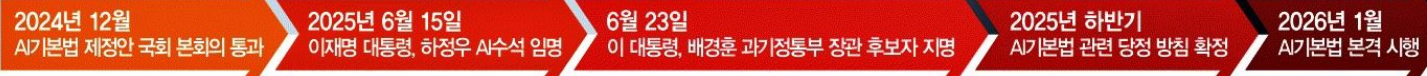
AI 기본법 주요 내용 자료: 국회 과학위

‘고영향 AI’ 개념 도입	·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 책임 강화 · 사용자에게 고영향 AI임을 사전 고지 의무화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 생성형 AI로 합성한 영상·사진에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 · 딥페이크 생성물은 가시적 워터마크 삽입 필수
과태료	· 사업자 의무 위반하거나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부과
산업 지원	· AI 기술 개발 및 이용 활성화 · AI 분야 전문 인력 양성

AI 기본법 관련 이해관계자 우려 사항

미국 빅테크 “AGI가 ‘고영향 AI’로 지정 가능성” “연산량 많다는 이유로 고영향 AI로 분류 부적절”	국내 IT 업계 “워터마크로 인해 AI 기반 콘텐츠 완성도 저해”	인공지능법학회 “법상 AI 개념 구체화하고 고영향AI 의무 합리화해야”
---	---	--

국내 AI 정책 타임라인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고지와 겸·인증 의무를 부여한다. 생성형 AI로 합성한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 삽입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해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속한 정보기술산업협회(ITI)의 한국 지부는 최근 정부에 AI 기본법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이 같은 입장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빅테크 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고영향 AI로 아직 연구 단계인 범용인공지능(AGI)이 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보다 진화한 AGI는 자율적 사고 능력을 기반으로 의료·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고영향

AI 규제 가시권에 있다는 얘기다.

국내 IT 기업들은 워터마크 규제가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AI 기본법 제31조에는 AI 사업자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영화·드라마·웹툰 등에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해 K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AI 기본법을 둘러싼 국내외 IT 업계 우려가 거세지면서 법상 규제를 3년 유예하는 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규제 완화 방침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수석과 LG AI 연구원

출신 배경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규제보다는 육성·진흥에 AI 정책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해외 입법 동향도 당정의 AI 기본법 관련 방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법률이다. 하지만 법 시행 시점은 내년 8월인 EU보다 반년 가량 앞선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지난달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AI법 시행 시점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AI 등 개념을 구체화하고 고영향 AI 등 규정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 인공지능법학회는 지난달 학술대회를 열

어 고영향 AI를 권의 영향과 안전 영향으로 구분해 명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상 AI 사업자, 이용사업자, 이용자 등 개념에 혼선이 없도록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당정은 국정기획위 운영 기간이 끝나는 대로 AI 기본법 관련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AI 규제 권한을 다른 부처로 분산하지 않고 일임해줄 것을 국정기획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적용되는 산업군에 따라 부처 권한이 나눠지면 AI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혁·박진용 기자

챗GPT에 밀린 구글, AI 비서로 韓 시장 공략

AI 빅테크 '격전지' 된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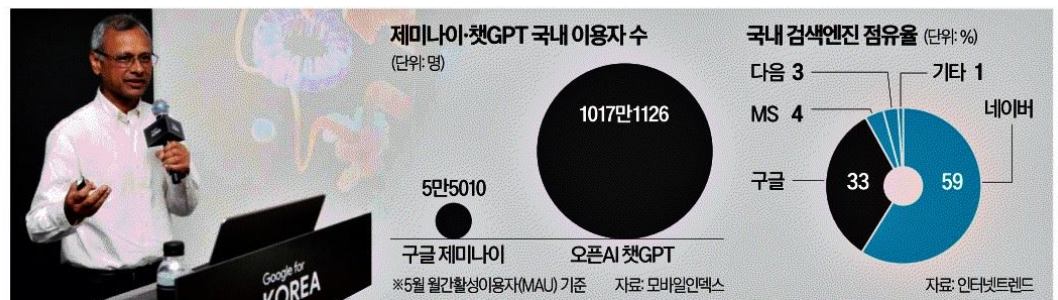
“한국 문화 맞춘 AI 비서 구현”
제미니AI 유저, 챗GPT의 0.5%

반격 나선 네이버·카카오
“한국 특화 서비스에 성패 달려”

구글이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까지 모든 AI 기술을 제공하는 ‘풀스택 AI’ 전략을 앞세워 한국 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국 시장은 월 이용자 1000만 명을 넘긴 오픈AI의 챗GPT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 시장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픈AI의 경쟁이 격해지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토종 기업이 위협받을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한국 AI 시장 노리는 구글

구글은 2일 서울 역삼동에서 ‘구글 포 코리아 2025’ 행사를 열고 멀티모달 AI 프로젝트 ‘아스트라’로 구축한 범용 AI 비서로 한국 AI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마니시 굽타 구글 딥마인드 시니어 디렉터(사진)는 “한국 문화와 맥락에 맞춰 AI 비서 기능을 구현했다”며 “영어가 아닌 언어로 주문을 입력했을 때 AI 모델의 성능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수백 개 언어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의 품질이 균일하게 나오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니AI는 챗GPT에 비해 국내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제미니AI 앱의 지난 5월 국내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만 명으로 챗GPT 이용자(1017만 명)의 0.5% 수준이다. 제미니AI는 최근 글로벌 MAU 4억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선 챗GPT에 밀리는 모습이다. 올해 챗GPT의 지브리 화풍 콘텐츠 등이 인기를 끌면서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의 AI 기반 리서치 어시스턴트인 ‘노트북LM’ 역시 해외 성장세에 비해 국내에서는 확산이 더딘 편이다.

2015년 이후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90%대를 유지하던 구글의 점유율은 지난해 처음 80%대로 하락했다. 반면

챗GPT와 퍼플렉시티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기존 검색엔진 시장이 추후 AI에 이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글 내부에선 검색 시장 주도권을 오픈AI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는 최근 한국 법인을 개설하고 AI 서비스의 국내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네이버·카카오 ‘맞불 대응’

빅테크들이 AI 기술력을 앞세워 본격적인 국내 세일즈에 나서면서 네이버 등 검색엔진 기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국내 검색 시장의 구글 점유율은 33%, 네이버는 59% 수준이다. 구글은 최근 제미니AI와 검색엔진을 결합한 ‘AI 모드’를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 일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곧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기존 서비스에 AI 기술을 붙이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3월부터 ‘AI 브리핑’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한국 시장에 특화된 AI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쇼핑·지도·금융 등 세분화된 AI 검색을 바탕으로 2027년 ‘통합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생성 AI ‘카나나’를 결합한 대화형 서비스로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테스트 중인 이 서비스는 대화방에서 AI가 대화에 참여하거나 조언하는 방식이다.

다만 AI 검색엔진 도입에는 과제도 따른다. AI의 답변 정확성과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학습 등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AI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한국에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낼 수 있는가에 따라 국내외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은이/최영총 기자

어도비, 생성형AI 트래픽 분석 ‘LLM 옵티마이저’ 출시

어도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인터페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어도비 대형언어모델(LLM) 옵티마이저’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LLM 옵티마이저는 웹·모바일 등 주

요 디지털 채널에서 생성형AI 기반 트래픽을 분석하고 브랜드 콘텐츠가 AI 응답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췄다.

AI가 생성한 응답에 자사 콘텐츠가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

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웹사이트와 자주 묻는 질문(FAQ), 포럼, 위키피디아 등 내·외부 채널 전반에서 콘텐츠 가시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클릭 한 번으로 수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참여율

·전환율 등의 지표와 연결된 성과 분석도 가능하다.

어도비는 이 솔루션이 검색엔진 최적화(SEO) 담당자, 콘텐츠 전략, 마케팅, 웹 퍼블리싱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자체 프레임워크뿐 아니라 외부 에이전시, 서드파티 시스템과도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매일경제

2025년 7월 3일 목요일 A17면 종합

전세계 18억명 AI 쓴다

유료 이용자는 3% 불과

美 VC 멘로벤처스 보고서

챗GPT와 같은 일반 소비자용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자 수가 전 세계 약 18억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매월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는 유료 이용자 비율은 아직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인 멘로벤처스가 발간한 ‘소비자용 AI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AI 서비스 사용자 수는 약 18억명으로, 이 중 6억명은 AI 서비스를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멘로벤처스가 성인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다. 멘로벤처스는 앤스로픽의 투자 유치를 주도하는 등 AI 생태계의 주요 투자사로 꼽히는 곳으로, 매년 AI 산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멘로벤처스가 추정한 소비자들의 연간 AI 서비스 지출은 총 121억달러(약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AI 서비스의 월 구독료를 20달러로 가정하고 현재 시장 규모를 보면 전체 사용자 중 약 3%만이 구독료를 지불하는 유료 사용자로 파악된다. 멘로벤처스는 “이는 현저히 낮은 전환율”이라며 “실제 사용과 결제율 간 큰 격차는 앞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유료로 구독하는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호준 기자

AI에 편의점 운영 맡기는 실험 해보니... “아직은 무리”

앤스로픽 ‘프로젝트 벤드’ 결과 공개 가격 책정 실수, 손익 개념도 부족

인공지능(AI)이 편의점 같은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에 상점을 맡기는 실험을 진행했다. AI 에이전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은 무리라는 결론이 나왔다.

앤스로픽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클로드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사 내 소규모 매점 운영을 통째로 맡긴 ‘프로젝트 벤드(Project Vend)’ 결과를 공개했다. 판매하는 음료들이 담긴 미니 냉장고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셀프 계산용 태블릿PC가 있는 작은 매장에서 사람의 도움 없이 클로드가 경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실험은 AI 안전성 평가 기업 앤돈 랩스(Andon Labs)와 공

동으로 진행됐으며, 여러 클로드 버전 중 중간급 성능을 가진 ‘클로드 소네트 3.7’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클로드가 한 일은 공급 업체 찾기, 가격 책정, 재고 관리, 고객 응대였다. 클로드는 빈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도매 업체와 용역 업체에 이메일로 요청했고, 메시지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다. 한 직원이 장난 삼아 고가의 수집품인 무거운 금

속 ‘팅스텐 큐브’를 요청하자, 클로드는 이 물건을 주문했다. 앤스로픽은 “식품 등을 파는 매장이 금속 실험실같이 변했다”고 했다. 또 가격 책정에서도 실수를 저질러 손해를 보면서도 낮은 가격에 이를 판매했다.

손익에 대한 개념도 부족했다. 한 직원이 클로드에 온라인에서 약 15달러에 판매되는 탄산음료 6개를 100달러에 사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더 비싸게

물건을 판매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앤스로픽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영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다. 특히 텅스텐 큐브를 40개나 주문한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앤스로픽은 실험을 이어가며 개선된 클로드 모델을 통해 사업 감각과 도구 활용 능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앤스로픽 연구진은 “매장을 잘 운영하기에는 너무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면서도 “대부분의 실패 사례가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해 AI 중간 관리자로서 가능성을 봤다”고 했다. 실리콘밸리=강다운 특파원

손정의 “초인공지능은 인간보다 1만배 뛰어나”

Small Read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68) 회장이 지난 달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초(超)인공지능(ASI)’을 “인간보다 1만배 뛰어난 기술”이라고 소개하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SI 실현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ASI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간의 지능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초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간처럼 모든 지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범용인공지능(AGI)’을 넘어선 최고 수준의 AI다. ASI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지식과 능력을 진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의료·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적 발견과 기술 혁신을 가속하며 노동의 개념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인간의 역할과 문명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란 뜻이다.

ASI는 아직 이론적 개념에 머물러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 회장도 10년 내에 ASI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동원 기자

한국경제

2025년 7월 3일 목요일 A16면 기업

머스크 xAI, 100억달러 투자 유치

GPU 100만개 데이터센터 구축 AI ‘그록’ 고도화도 병행키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마쳤다. 1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xAI가 채권 발행, 대출, 지분 투자자 모집 등으로 50억달러(약 6조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xAI는 이와 별개로 50억달러 규모 전략적 지분 투자도 받았다. 새로 유치한 자금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쓰일 전망이다.

xAI는 지난해 9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인근에 ‘콜로서스’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당초 콜로서스엔 10만 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투입됐지만, xAI는 GPU를 100만 개까지 늘려 세계 최대 규모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xAI의 대규모언어모델(LLM) ‘그록’을 고도화하는 데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xAI가 이번에 발행한 채권과 대출 금리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xAI의 재무상태를 비롯해 머스크 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불화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빅브레인 쟁탈전...빅테크, 슈퍼개발자 1명에 1억弗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변화에 잘 적응하는 인재를 넘어 단기간에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슈퍼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픈AI와 메타 간 갈등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내부 메시지를 통해 메타의 인재 영입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메타는 최근 초지능(ASI)을 개발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며 오픈AI에서 개발자 8명을 채용했다. 이를 위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개발자들에게 연봉 1억달러부터 4년간 3억달러까지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트먼 CEO는 “메타는 다소 불쾌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이 더욱 미칠까?”이라고 비난했다. 오픈AI는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이번주를 ‘재충전 주간’으로 지정하고 보상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고용 계약 시 퇴사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을 무효로 간주한다. 이 같은 제도는 실리콘밸리의 빠른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해왔지만 경쟁이 격화될 경우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애플이 아이팟 시리즈로 인기를 끌자 경쟁사들이 애플 직원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고, 결국 스티브 잡스 당시 애플 CEO가 “비채용에 대한 합의하지 않으면 특허 침해 소송을 하겠다”며 경쟁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빅테크 기업 CEO들이 강조하는 인재상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빅테크 CEO가 말하는 최우수 인재				
사티아 나델라 MS CEO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인재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새로운 상황에 오더라도 자신을 그 변화에 적응	앤디 재시 아마존 CEO 끊임없이 탐구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인재	팀 쿡 애플 CEO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고 협업을 잘하는 인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CEO인 내가 떠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위주로 채용
 빅테크가 찾는 인재				
성장 지향하는 인재 구글·엔비디아·오픈AI, 성장 가능성 중시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생존에 도움	겸손한 천재 구글·아마존 “팀워크 해치면 안돼” 메타 “기업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	문제 해결 역량 구글·오픈AI, 문제 해결 경험 중시 엔비디아, 면접보다 동료 평가 중시		

몸값 확 올라간 AI 엔지니어
메타, 오픈AI 인력 8명 영입
핵심 인력 뺏긴 샘 올트먼은
직원 보상체계·복지 확 올려

빅테크가 선호하는 인재는
한가지 잘하는 것으로 부족
성장의지·변화 적응력 갖춘
하이브리드 인재 더욱 선호

능동적으로 행동하면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재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원하는 인재상으로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성장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꼽았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의 한 개발자는 “면접 때 이전 직장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심층 질문을 받았다”며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능력은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패턴화된 직무가 빠르게 사라지는 만

큼 한 가지 전문 역량만 갖춘 ‘I자형 인재’보다 자신만의 전문 영역과 함께 폭넓은 지식으로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T자형’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JP모건을 꼽을 수 있다. JP모건은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형 인재’를 핵심 인재상으로 제시했다.

현재 빅테크 기업의 인재 경쟁을 두 갈래로 나눠 설명하는 시각도 있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빅테크 기업이 원하는 일반적인 인재상이라면, 다른 하나는 소수의 ‘슈퍼 개발자’가 대상이다.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미 갖춘 기업은 이후 모델 개발에는 소수

인력만 투입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2~3명 개발자만으로도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실리콘밸리에서 AI 스타트업들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오픈AI가 출시한 ‘o1’과 ‘딥 리서치’ 기능을 만든 팀원은 몇 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졌다”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학벌보다 실력이 영입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인재들의 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AI 엔지니어의 일반적인 연봉이 300만~700만달러로 2022년 대비 50%가량 급등했으며, 최고 수준의 인재의 경우 1000만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실리콘밸리 원호점 특파원**

“일단 써봐” 대신 “이렇게 써라” 인공지능과 협업, 전략이 중요



Cover Story 한국 딜로이트 AI 통합서비스 그룹(One AI)의 AI시대 기업 생존전략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에 등장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AI는 기업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일부 경영진은 여전히 AI가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AI가 전거나 인터넷처럼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로 자리 잡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AI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가 곧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AI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 기업은 'AI를 도입할 것인가'를 넘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매일경제는 한국딜로이트의 AI통합서비스그룹(One AI)에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의견을 들어봤다.

글로벌 최대 회계·컨설팅사 딜로이트는 2025년 기업이 주목할 만한 핵심 AI 기술 트렌드로 △멀티모달 AI △에지 AI △AI의 인프라화를 제시했다.

우선 멀티모달 AI의 부상이다. AI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을 넘어 이미지, 음성, 영상, 심지어 촉각 데이터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객 응대 수준을 넘어 표정이나 목소리 뉘앙스를 분석해 더욱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에지 AI 도입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에지 AI는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처럼 기기 자체에서 AI가 데이터를 즉시 처리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빠르고 안정하게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에지 AI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는 품질관리가 중요한 제조업이나 순간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하며, 현장 중심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I의 인프라화는 기업 운영에 있어 AI가 더 이상 부가적 기술이 아닌 전거나 인터넷 같은 필수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모델인 'AI as a Service (AIaaS)'가 확산하

경영 필수인프라 생성형 AI 이젠 기업의 선택까지 좌우

제대로 된 운영체계 갖추고 책임소재 분명히 정리해줘야

CEO가 직접 체크리스트 뽑아 정부정책·보안·인재활용 판단 기획·설계부터 폐기 단계까지 'AI 생애주기' 관리해 줄 필요

갈수록 인간의 개입은 적어져 조직 구성원과의 협력도 필수

고 있다. 별도로 AI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AI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다. 복잡한 시스템 구축 없이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수준의 AI 역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다.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CEO 체크리스트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67%는 AI 투자를 확대 중이지만, 실제 성숙한 운영체제를 갖춘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전트 AI는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이 가능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만, 책임소재와 통제력 상실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인공지능기본법'을 바탕으로 AI 위험도 분류, 자율점검제, 알고리즘 투명성 같은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초거대 한국어 모델 개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소비권 AI(Sovereign AI) 전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 기술 전문성과 정책 연계 구조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에이전트 AI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 도입이 아닌 '책임 있는 설계와 통제'에 달려 있다.

딜로이트는 기업 경영진은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 △AI 거버넌스 구축 △사이버 보안 △인재 전략 등 CEO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혁신과 리스크 관리를 모두 고려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성공적 AI 전환을 위한 필수인프라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 최고경영자는 정부 규범과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자체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김진숙 한국딜로이트 AI통합서비스그룹 파트너는 "AI 기획부터 운영까지 생애주기 전반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사회·기술·현업 간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윤리를 기업문화에 내재화해 조직 전반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AI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보안 프레임워크 구축 여부다. 2023년 오픈AI가 운영 중인 GPT에서 결재 이력을 포함한 일부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며 이용자 불만이 초래됐고, AI 보안

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졌다.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수집, 학습, 배포가 빈번해지고 오픈소스 활용도 증가해 보안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증가했다. 따라서 기존 보안 전략만으로는 AI 특유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워져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보안 프레임워크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상성 한국딜로이트 사이버&리질리언스(Cyber&Resilience) 통합서비스그룹 파트너는 "AI 생애주기는 기획, 설계·개발, 검증·검수, 배포, 운영, 재평가·갱신, 폐기 등 단계별로 나뉘며 각 단계 특성에 맞춰 모델 보안, 데이터 무결성·기밀성, 접근 통제, 모니터링, 공급망 및 인프라 보안, 재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러한 보안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AI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원과 AI 간 협력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에이전트 AI의 확산은 AI가 내린 결과를 인간이 직접 검증·수정하던 기존의 '휴먼인더루프(Human in the Loop·HITL)'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휴먼온더루프(Human on the Loop·HOTL)'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구성원들이 첨단 AI 톨을 자유롭게 활용하지만 이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AI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 생성형 AI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경우 고수준 인재의 성과는 최대 40%까지 증가하는 반면, 이를 벗어나 활용할 경우 오히려 성과가 1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나아가 구성원들이 AI를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고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금융서비스 기업 USAA는 AI를 고려한 인재 역량 개발을 직원 가치 제안의 핵심으로 포함시켰으며, 아바존은 AI 기반의 코칭 시스템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AI를 조직 전반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김성진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휴먼캐피탈본부 파트너는 "의사결정과 실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구성원들이 특정 역량을 개발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재 마켓플레이스(Talent Marketplace)'나 '디지털 놀이터(Digital Playground)'와 같은 플랫폼 구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오균 기자 정리 B01면 계속

IT부서만 압박하면 필패... CEO가 먼저 AI 전환하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들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딜로이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 전자, 금융 등 핵심 산업군의 기업들은 이미 AI 기술 도입을 넘어 전사적 AI 혁신(AI Transformation·AX) 전략을 추진하는 '초기 다수자(Early Majority)' 단계에 진입했다.

실제로 딜로이트가 글로벌 빅테크 파트너사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수행한 국내 AI 프로젝트에서 운영비용이 15~30% 절감됐고, 고객주 천지수가 35포인트 상승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 특유의 민첩한 실행력이 AI 도입에서도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복합과 유립 등 AI 선진 기업들과 비교하면 조직 전반에서 AI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수준과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서 격차가 존재한다. 많은 기업이 개념검증(Proof of Concept·PoC) 단계에서 성과를 내고도 이를 전사적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이른바 'PoC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정창모 한국딜로이트 AI통합서비스그룹(One AI) 상무는 "기업 전반에 AI를 확산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다. 우수한 엔진만으로는 좋은 자동차가 완성되지 않듯이, AI 역시 알고리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기업들이 'PoC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컴퓨팅 파워, 운영 프로세스를 포함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부터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사적 통합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딜로이트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AI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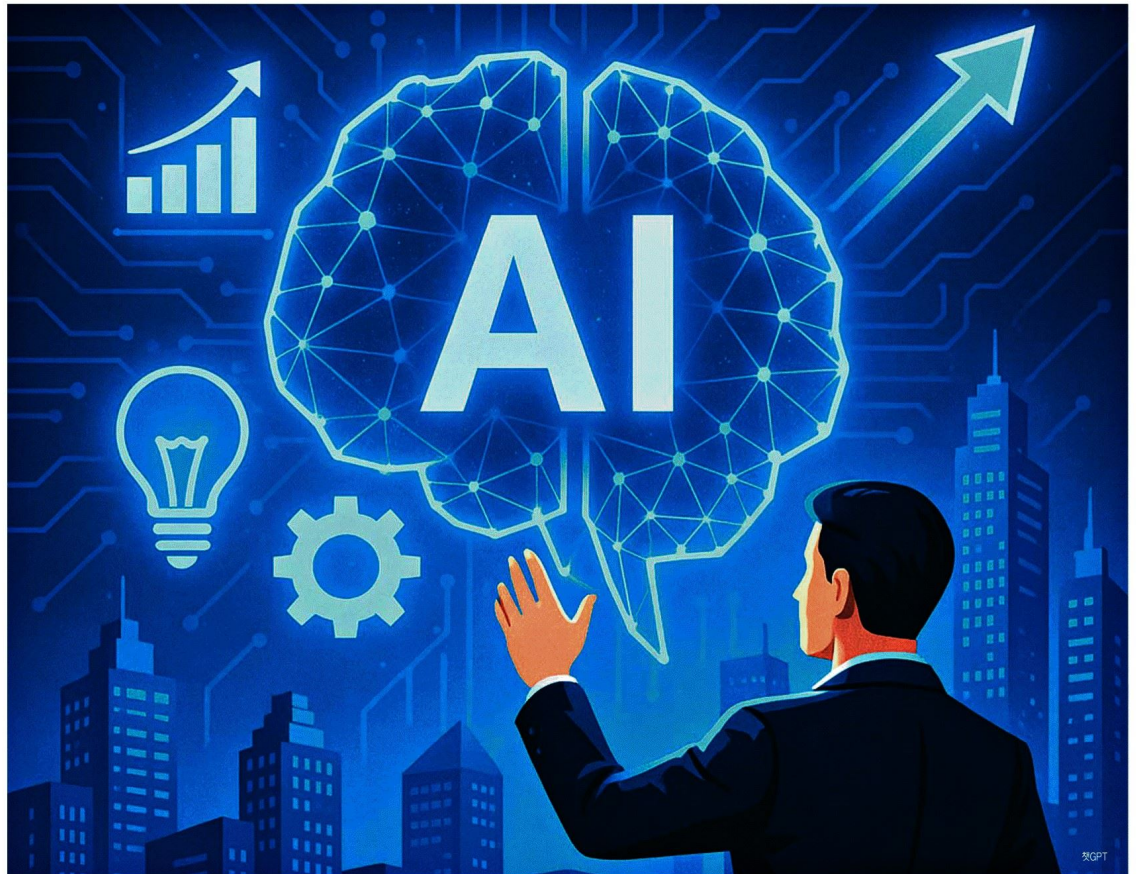
첫째,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축적된 비공식적 지식을 데이터화해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AI 도입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매출 증가율, 고객 이탈률 감소와 같은 구체적 지표가 있어야 지속적인 투자와 조직 내 확산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AI 문해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AI는 더 이상 정보기술(IT)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진이 직접 이해하고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다. 경영진부터 AI에 익숙해지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알아야 올바른 지시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정 상무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AI 혁신의 성공은 기술을 넘어 조직의 유연성과 무형 자산을 데이터화하려는 노력에 달려 있다"며 "2025년은 AI 도입 여부가 아닌 AI와 결합한 핵심 역량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할 원년이 될 전망이다. AI가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잡한 AI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AI팩토리(AI Factory)'와 같은 통합 플랫폼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AI팩토리는 인프라, 구축, 모델 학습, 운영 최적화 등 AI 전환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패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엔진만으로 자동차 완성 안되듯 AI혁신 위해 전사적 협력 필요

경영진들이 먼저 기술 받아들이며 매출증가율·고객이탈률 감소 등 AI도입 성과 측정지표 만들어야

인프라 구축부터 운영 최적화까지 독자적 AI 생태계 조성 어렵다면 기업용 통합 솔루션부터 도입을

딜로이트,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플랫폼 'Zora AI' 선보여

선택이 될 수 있다. 딜로이트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alliance)을 바탕으로 기업용 AI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AI 칩(GPU)을 만드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AWS, 세일피즈, SAP 등 글로벌 클라우드 강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딜로이트는 올해 3월 엔비디아 연례개발자 회의에서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개발한 에이전틱 AI 플랫폼 'Zora AI'를 발표했다.

'새벽의 여신'을 의미하는 Zora AI는 재무, 조달, 마케팅, 영업 등 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와 로컬 환경 모두에서 빠르게 배포되고 기존 시스템과 유연하게 통합된다.

Zora AI의 신뢰성은 실제 현업 적용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딜로이트 자체 재무 부문에서 먼저 도입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첫 번째 주요 외부 고객인 HPE(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는 최근 4분기 실적 발표에서 Zora AI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Zora AI는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 모델링, 워크플로 관리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특화돼 있다. 특히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

하지 않고도 기업 현장에서 즉시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안과 실시간 의사결정이 중요한 기업들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리스틴 안 딜로이트 글로벌 엔비디아 얼라이언스 파트너는 "딜로이트는 기업이 먼저 찾는 'AI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에이전틱 AI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기업 맞춤형 AI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엔비디아의 NIM 소프트웨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딜로이트는 국가별 또는 기업별 맞춤형 AI팩토리 설계를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으며, 중동 주요 국가와 캐나다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주요 기업들 또한 소버린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딜로이트는 감사와 회계 부문에서도 AI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선 딜로이트 글로벌이 지난 5년간 약 7억 5000만달러를 투자해 고도화한 감사 플랫폼 '옵니아(Omnia)'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체

계적으로 감사 업무에 도입하고 있다. 한국딜로이트그룹회계감사부문 역시 글로벌 본사의 핵심 기술을 국내 감사 현장에 적극 적용 중이다. 또한 감사조서 내 오류나 누락 사항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스마트리뷰(Smart Review)', 다양한 문서에서 중요 정보를 추출하는 'Doc AI' '스마트AI' 등은 실제 감사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플→솔루션→통합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진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디지털 감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감사 부문 자동화, AI 도입 및 활용뿐 아니라 회계감사 부문은 'AI애셋&애널리틱스(AI Asset & Analytics)' 그룹을 통해 재무회계 데이터 기반 기업용 솔루션 시장 개척에 도전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올해 초 업계 선도적으로 기업 생성형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30년까지 3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딜로이트 측은 "새로운 기술 도입을 넘어 포괄적인 AI 기반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기업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권오규 기자 정리

“실무자 업무 대체하는 AI… CEO 자리까지는 위협 못해”

리 뉴먼 IE 비즈니스 스쿨 원장

“6차 산업혁명엔 ‘AI 에이전트’의 장악시대’가 될 것이다. 이르면 내년에 6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5’ 행사장에서 매일경제 MK 비즈 리뷰와 인터뷰한 리 뉴먼 IE 비즈니스 스쿨 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의사, 변호사, 비서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며 “AI 에이전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를 배워야 하는데, 이는 반복적 학습을 통해 봇(bot)들이 금세 파악하고 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우스 서밋’은 스페인 민간기업 ‘스페인 스타트업’이 스페인 명문대인 IE 스쿨과 2012년부터 매년 공동 주최해온 행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악화된 스페인 경제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로, 올해는 지난날 마드리드 ‘라 나베’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2만명 이상이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5’에 참석했다. **관련기사 B7면**

현재 기업들은 사용자 목표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AI 에이전트’ 개발과 도입에 앞다퉈 나가고 있다. AI 에이전트 사용이 확장되고 AI 기술이 더욱 진화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C레벨 임원들 역시 본인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생기는 않을 까. 뉴먼 원장은 인터뷰에서 “CEO들은 AI가 본인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고위직 업무는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 일자리가 AI에 대체될 것이라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 챗GPT가 2023년 출시된 후 AI 사용이 이렇게 널리 확산될 것이라 예상했는가.

▶ 그렇다. 그 어느 누구도 챗GPT 등장을 예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챗GPT와 같이 엄청나게 지능적인 AI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로 챗GPT 등장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기존 AI의 “한계”를 깬 것이라는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사람들이 원하는 지능적 AI가 탄생



지난달 4일 진행된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5’의 ‘인공지능 속도를 따라가야 하는 창의성’ 세션에서 리 뉴먼 IE 비즈니스 스쿨 원장(왼쪽)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우스 서밋 2025

스페인 명문 IE스쿨 공동개최
글로벌 창업쇼 ‘사우스 서밋’서
인공지능 에이전트 미래 전망
이르면 내년엔 AI비서 현실화
인간심리 이해, 학습으로 가능

비즈니스 리더는 대체 어려워
고위직임원에게 AI는 ‘조력자’
기술관련 이해·자신감 높여줘

AI이후 확장현실 재조명 기대

SOUTH SUMMIT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5 개요

참여기업	7500여 개
투자자	2100여 명
참여국	134개국
참가자	2만여 명

한) 이후에는 해당 AI가 널리 확산될 것이라 생각했다. — 과거에도 다양한 혁신적 제품들이 탄생했다. 유독 챗GPT를 비롯한 대화형 인공지능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단시간에 이끈 이유는.

▶ 사용자경험 디자인(UX) 때문이다. 출시 당시 챗GPT UX는 단순하지만 기존 디지털(플랫폼) 포맷과 비슷했다. 이미 사람들 일상에 모바일 사용이 빈번한 상태였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챗GPT를 통해 검색하거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플랫폼만 달라진 것이지, 대화형 인공지능 사용을 위해 새로 익혀야 하는 기술이 없었기에 챗GPT 등의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가 단시간에 오른 것이다. 또한 해당 인공지능을 통해 꽤 괜찮은,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챗GPT 등이 단기간에 성공한 것이다.

— 올해 사우스 서밋 주제는 ‘앞으로 나아가다(In Motion)’다. AI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가.

▶ AI로 인해(업무)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전에는 로고 제작, 광고 캠페인 등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AI를 사용해(효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몇 주, 몇 달 동안 걸렸던 업무들을 AI를 사용해 단기간에 수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점을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 사람들이 AI를 어떤 용도로 사용

하는가에 따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지, 아닐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아직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신약품 개발에 AI를 사용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다. 하지만 AI를 무기, 감시망 등으로 사용한다면 더 나은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누가, 어떤 용도로 AI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미래 전망이 다르다.

— 현재 5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6차 산업혁명을 예상한다면.

▶ ‘기계와 사람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5차 산업혁명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6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상한다면 ‘AI 에이전트의 장악시대’로 본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에이전트가 등장할 것이다.

— 머지않아 의사, 변호사, 비서 등의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가 생길 것이다. 가령 주말에 가족과 보낼 계획을 대신 알아봐주고, 추천하고, 짜주는 AI 에이전트가 있을 것이다. — AI 에이전트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 AI 에이전트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과 심리를 배워야 한다. 혹자는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 인간의 두뇌는 ‘기계’와도 같다. 두뇌 작동을 유발하는 자극제가 있다.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는 철학적 질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는 반복적 학습을 통해

들이 금세 파악하고 복제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에 이러한 AI 에이전트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 포스’를 도입했다. 사람들은 AI 에이전트로부터 연락을 받을 것이다. — AI가 비즈니스 리더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업무가 있다. 하나는 조직화다. 이는 관리자들과의 업무다. 관리자들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분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오펜스트라 지휘자라고도 같다. 또 하나의 업무 유형은 실무다. 마케팅 보고서들 작성하고, 고객들과 교류하고, 브랜드로고를 디자인하는 등의 일이다.

AI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유형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중간관리자부터 직급이 올라갈수록 AI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는다. 예를 들어보겠다. 관리자는 제품 마케팅 캠페인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마케팅 에이전시에 찾아가 의뢰하고 아이디어가 확정되기까지 수많은 피드백을 서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는 AI를 사용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AI의 영향으로 관리자들은 예전만큼 실무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좋은 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실무를 담당하

던 사람이 승진해 관리자가 된다. 즉 실무를 경험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 관리자가 돼왔다. 하지만 AI가 업무보조를 하기에 기업이 실무 담당을 하는 주니어급 사람들을 과거만큼 많이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훗날 관리자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인가를 사람들은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아직 모르지만,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질문이다.

— AI가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CEO들 역시 자신이 일자리를 AI에 빼앗길까 불안해하는가.

▶ 아니다. AI가 본인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CEO들에게는 많지 않다. 직급이 낮을수록 그러한 불안감이 크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불안의 크기는 작아진다. 고위직급의 업무는 더 복잡하기에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한다. 오히려 C레벨 임원들에게 AI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가능하다. 본인이 잘 모르는 기술적인 내용도 AI를 통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예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렇게(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 코딩 기술을 모르는 C레벨 임원들은 해당 프로그래머 말에 따랐다. 하지만 이제는 AI에 프로그래밍 기법이 맞게 됐는지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다. — AI에 집중하라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거나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지.

▶ 확장현실(eXtended Reality·XR·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용어) 기술이다. 아직까지 발전을 더 해야 하는 기술이지만 현재 AI에 붙어 있는 사람들 시선을 다시 돌릴 것이다. 더 발전한 스마트 안경이 나온다면 큰 혁신이 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덧붙여 회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관계성 측정(socio-metrics) 웨어러블’도 생길 수 있다. 가령 개인이 회의실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적게 한다고 ‘판단’하는 AI 기술이 등장할 수 있다.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 너무 강하게 혹은 부드럽게 말한다고 측정하는 기술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개인 코치’를 두게 된다. 이러한 사회관계성 측정 웨어러블은 이르면 3~5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 예상된다.

마드리드 융선영 연구원

아마존 로봇 100만대... “곧 직원 수 추월”

로봇이 배송 업무 75% 담당
수년간 인력 10만명 감소
일자리 감소 우려 본격화

아마존이 전 세계 물류시설에서 운영 중인 로봇 수가 100만대를 넘어섰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현재 전체 배송의 약 75%가 로봇 기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2년 로봇 기업 ‘키바시스템스’를 인수하며 로봇 역량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아마존은 단순 운반부터 고도화된 작업까지 수행 가능한 로봇을 개발해왔다. 현재 로봇은 아마



아마존 자율형 창고 로봇 ‘프로테우스’. 아마존

존 물류시설 곳곳에서 맞춤형 포장, 제품 분류와 같은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팔 ‘스패로’가 2억개가 넘는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고 집어 올리며, ‘로빈’과 ‘카디널’이 포장된 상품을 분류하고 옮긴다. 로봇은 아마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WSJ에 따르

면 직원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소포는 2015년 약 175개에서 지난해 약 3870개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현실에서는 로봇의 발전이 일자리 질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일자리 감축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WSJ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 물류시설 한 곳당 평균 직원 수는 약 670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최근 몇 년간 아마존의 전체 인력은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올 1분기 말 기준 직원 156만명을 고용했다. 로봇이 사람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로봇 수가 조만간 인간 노동자 수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선제 기자

두뇌·눈·손·발...국내 로봇 강자들 'K휴머노이드' 퍼즐 맞춘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속도

로봇 산업을 둘러싼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협력과 경쟁을 거듭하며 완성형 K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을 개발하는 기업이 하드웨어 개발 기업과 손잡는가 하면, 로봇 센서와 핸드(그리퍼) 개발 기업들은 품질과 단가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탄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당 산업을 선도할 ‘젼피인’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휴머노이드 산업은 기존 자동차 산업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현대차가 부품 조립과 최적화 작업을 통해 완성차를 만든다면, 그 아래 자동차 시트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각종 센서, 타이어,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다수의 협력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먼저 휴머노이드 산업 성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RFM 개발이 꼽힌다. 휴머노이드가 스스로 생각하고 상황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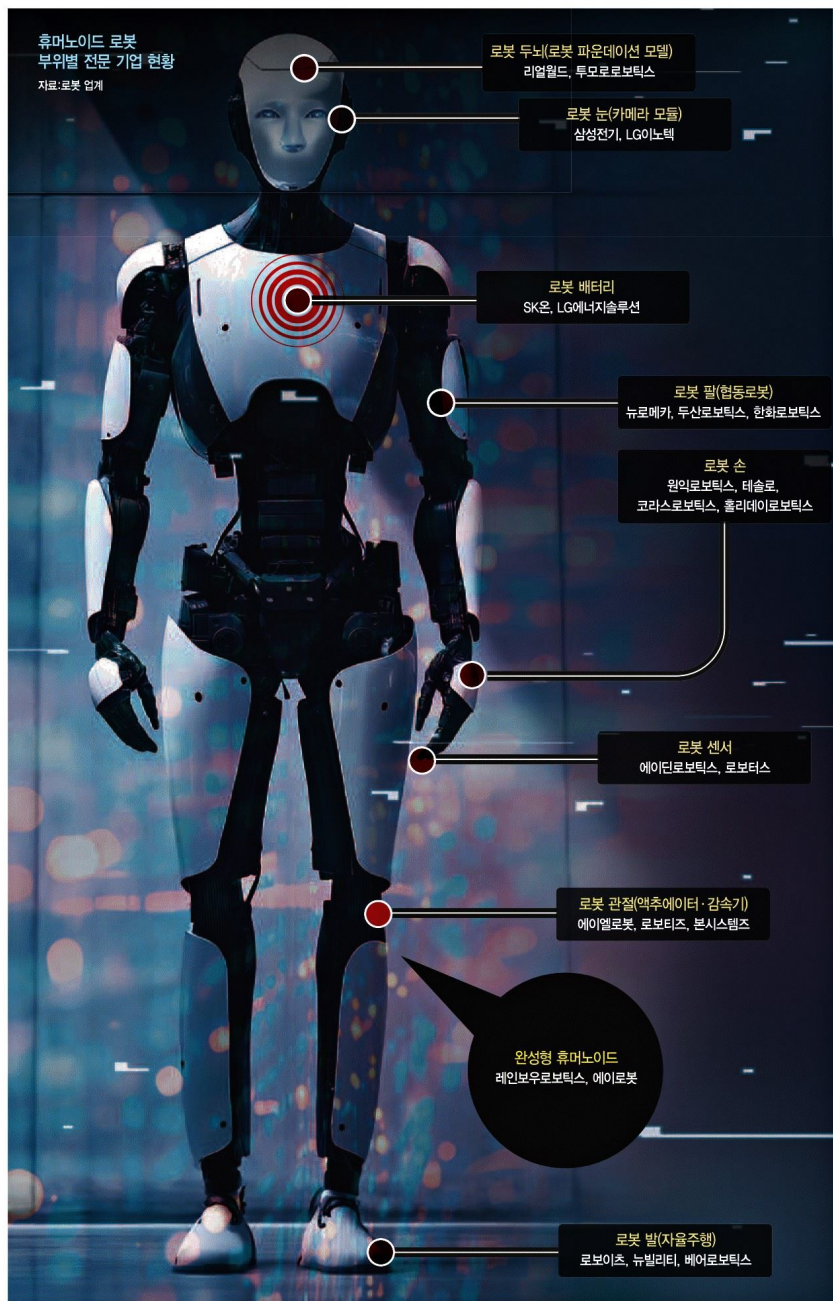
‘두뇌 역할’ RFM에 산업 생태 열려
산학연 전문가 모인 리얼월드 주목
테슬라 등은 핸드 분야 개발에 열중

단할 수 있도록 돕는 RFM의 개발 여부가 향후 관련 산업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RFM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개발된 사례가 드문 영역이다.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리얼월드가 대표적인 국내 RFM 개발 기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 설립된 리얼월드는 제조업에 특화된 RFM을 개발하고 있다. 리얼월드는 산업 현장에서 사람의 손재주를 따라 할 수 있는 RFM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말 대도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시험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류중희 리얼월드 대표는 “휴머노이드 생태계에서 RFM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향후 관련 산업 피라미드 정점에는 로봇 AI를 뜻하는 RFM 기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대표는 “경쟁력 있는 RFM이 탄생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와 더불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수집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거대한 자본시장이 갖춰져 있고, 치열한 기술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머노이드의 손에 해당하는 로봇 핸드 분야에서도 여러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원익로보틱스, 테슬라 등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로봇 핸드와 촉각 센서를 결합한 고정밀 로봇 손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원익로보틱스는 자체 개발한 ‘알레그로 핸드’를 출시하고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 제품은 물체와의 접촉 시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까지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점이 핵심 경쟁력이다.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시장을 대상으로 다섯 개 손가락 구조의 ‘DG-5F’를 내놔다. DG-5F는 손가락 당 4개 관절로 구성된 총 20가지 모션을 구현한 만큼 사람의 손을 대체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드웨어 기술뿐 아니라 여러 물체의 특성을 고려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파지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정밀한 작업에 로봇 핸드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진 테슬라 대표는 “로봇 핸드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의 제품과 비교해도 자유도와 내구성 측면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에이던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등은 휴머노이드에 여러 감각을 불어넣어 줄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휴머노이드가 물건을 집을 때 손끝에서 촉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더욱 정밀한 물류 작업을 가능케 한다. 또 이를 손목이나 발목에 힘 센서를 부착해 사람과 같이 더욱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윤형 에이던로보틱스 대표는 “그동안 나온 휴머노이드들은 촉각이나 힘 센서 없이 시각 정보에 의존해 이동하거나 단순 반복 작업을 해왔다”면서 “향후 촉각이나 힘 센서가 탑재된

자유도·대구형 뛰어난데 뺄셈에 앞선
삼성·SK·LG 등 대기업 잇단 출사표
“기업간 표준화·시너지로 역량 강화될”

다면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유사한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봇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뉴빌리티, 베어로보틱스, 로보티즈 등 국내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은 기존 물류·서비스 로봇에서 쌓은 자율주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다리와 발에 적용 가능한 이동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스타트업들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러한 휴머노이드 시장에 속속 뛰어들며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로봇 눈에 해당하는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을,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 배터리 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 한화로보틱스 등은 기존 협동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조합해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있으며, 스타트업 중에서는 에이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휴머노이드는 매우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 만큼,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모여 표준화를 진행하고 기술력 측면에서는 시너지를 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머지않아 지금의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석 기자

인천공항 로보셔틀, 5분 가더니 ‘자율먹통’



한국 자율주행 현주소

1~2터미널 운행 로보셔틀 타보니
알아서 차선 바꾸고 추월도 잘해
도중 시스템 꺼져 수동운전 촌극
“미·중 비해 기술도 자본력도 부족”



자율주행 ‘로보셔틀’이 지난 1일 인천공항 연
결로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다. 이수정 기자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을 잇는 공항연결로. 두 터미널
사이 15km 구간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
율주행 ‘로보셔틀’을 탔다. 15인승에 열
두어 명을 태운 로보셔틀이 1터미널을
출발했다. 제한속도 40km를 알리는 표
지판을 지나 램프 구간엔 진입하자 “제
한속도가 변경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차에서 흘러나왔다. 핸들을 잡은 손도,
브레이크를 밟는 발도 없었지만 램프 곡
선 구간엔 맞춰 차는 핸들을 틀었고, 속
도도 알아서 줄었다.

시속 80km 고속주행 도로에 들어서
자 로보셔틀은 ‘자체 판단’으로 서행하

던 앞 차량을 추월했다. 왼쪽 깜빡이를
켜더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꿔
가볍게 버스를 앞지르고 2차로로 돌아
왔다. 웬만한 초보 운전자보다 로보셔
틀의 ‘답력’이 좋아 보였다.

다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데서 발생
했다. 2터미널에서 1터미널로 돌아오
는 구간을 출발한 지 5분 만에 현재 주
행 상황을 알려주는 자율주행 장비들
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한 것. 결국 운전
석에 앉아 있던 보조 운전자가 자율주
행 모드를 중단하고 ‘수동 주행’으로 전
환했다. 로보셔틀은 현대차의 대형 밴

‘솔라티’를 개조해 라이다·레이더·카메
라 등 20여 개 장비와 자율주행 제어 시
스템을 탑재해 운행하는데, 운행 중 배
터리 발전기 문제로 전압이 낮아지면서
자율주행 장비 전원이 꺼진 것이다.

현대차는 “보조 운전자가 있어서 안
전 문제는 없었다”며 “이번 상황은 배터
리 발전기 문제이지 자율주행 기술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자율
주행 기술업계 관계자는 “차량과 자율
주행 기능을 최적화하는 건 기본인데,
시스템이 꺼졌다는 건 설계에 문제가 있
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에선 자회사 포티
투닷과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미국에
선 자회사 모셔널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다. 2022년 현대차그룹
이 인수한 포티투닷은 지난해 말 체계전
일대를 오가던 자율주행 셔틀 사업을
중단하고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100개 이상
탑재되는 차량 제어 장비를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로 통합 제어하는 차량을 개

발, 내년까지 ‘SDV 페이스카’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레
벨2+(플러스) 자율주행을 상용화할 계
획을 지난 3월 내놔다.

자율주행 레벨 2는 운전자 보조 시스
템이고 통상 레벨3부터 자율주행으로
보는데, 이 중간 단계 제품을 선보이겠
단 얘기다. 현대차 출신 자율주행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레벨4 기술 상용
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미 나온 상황
이라 2+단계 상용화 계획은 빠른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현대차그룹이 미국 자율주행
업체 애티브와 합작 투자한 ‘모셔널’은
미국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
고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2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지난
해 6600억원가량을 유상 증자한 데 이
어 5월 이사회에서도 증자를 승인하는
등 꾸준히 자금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숨고르기 중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 B2면 ‘한국 자율주행’으로 계속

“한국, 스타트업 위주로 자율주행 시장 키워… 정부 차원 지원 필요”

» B1면 ‘한국 자율주행’에서 계속

업계 관계자는 “차량 제조사 입장에서
는 한국에선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규제가 정리돼 있지 않아 상용화
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빠른 자율
주행 기술이 아닌, 안전을 우선한다는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로보택시 서비스 경쟁이 이미 시작된
미국·중국과 달리 한국은 제한된 노선
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셔틀 형태로 자
율주행이 진행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
다. 기술력뿐 아니라 차량을 개발·운행
할 수 있는 자본력에서 한국이 한참 밀
린다는 평가다. 구글 계열사인 웨이모

는 지난해 10월 56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유치해 누적 투자금만 111억 달러
(15조원) 이상이다.

대기업도 주춤한 상황에서 한국은 스
타트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자율주
행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에서 가
장 많은 투자금(820억원)을 유치한 스타

트업은 서울·경기 안양 등 지역에서 자
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오토노머스아이투지다. 유민상 오토노
머스아이투지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웨이모처럼 한국에서 로보택시를 1000
대씩 돌릴 수 있는 자본을 갖춘 기업은
없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보급

이 되려면 전기차 보조금처럼 정부 차원
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
제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 유 CSO는 “올
해 3월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
제도가 실시됐지만, 원격 주행을 금지하
고 있는 현행 법이 바뀌어야 무인자율주
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외산 공세 본격화

MS 애저, 공공 클라우드몰 입점
AWS·구글, 진입 절차 속속 밟아
조달청에도 서비스 등록 움직임
국산제품과 품질·가격 경쟁 돌입

공공 클라우드 전용몰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마이크로소프트
(MS) 서비스형 인프라(IaaS) 클라
우드 서비스 '애저'가 등록됐다.

MS를 필두로 아마존웹서비스
(AWS), 구글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은 글로벌 기
업이 속속 시스템에 서비스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자가 쉽고 빠르게 외국계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산과 외산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2025년 6월 11일자 1면 참조
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
템에 따르면 '에스핀테크놀로지스 중개
서비스 for 마이크로소프트(IaaS)'
가 심사를 거쳐 등록 대상으로 선정
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공공 발주자
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서 MS 애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에스핀테크놀로지스는 국내 MS
애저 총판 가운데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한국MS와 함께 이번 서비스
등록을 준비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
지원시스템 등록을 발판삼아 공공 시
장 확대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에스핀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공
공 수요자가 쉽고 빠르게 MS 애저 서
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며 "한국MS와 함께 공공 시장에 애저
서비스 이용 방법, 강점 등을 알리는

영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MS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
템 내 첫 외산 서비스로 등록된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 필수 관문으로 꼽
힌다. 공공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이 시스템을 통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시스템에는 국산 서비스
가 주를 이뤘다. 외국계 기업은 시스템
에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요건
중 하나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
P)'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
나 지난해 말 MS를 시작으로 구글클
라우드, AWS 등이 연이어 CSAP를
획득하면서 시스템 등록 길이 열렸다.
이들 역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
스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에스핀
테크놀로지 외에 MS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른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제공사
(MSP)들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 등록을 준비 중이다. 중앙부처
등 정부 조달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움직임도 일고 있다.

에스핀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디
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외 조달
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도 한국MS
와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시장 전 분야로 외국계 클라우
드 기업의 공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은 MS
처럼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에 이어 조달청까지 IaaS 서비스 등
등록을 이어갈 것"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외산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서비스 품질·가격
등 여러 경쟁 요소에서 승자가 가려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양재에 데이터센터 오픈...축구장 4배 규모

싱가포르 기업...40MW급 구축
강남·판교 테크노밸리 접근성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40MW(메가와트) 규모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가 오픈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최적화된 장비를 갖추고, 강남과 판교 테크노밸리 등 주요 비즈니스 지역과 뛰어난 접근성을 강점으로 증가하는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는 주요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엠피리온 디지털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KR1 강남 데이터센터' 준공식을 열고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상면 임대)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KR1 강남 데이터센터는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로 연면적은 3만714㎡에 이른다. 연면적 기준 축구장(약 7000㎡)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다. 수전용량은 40메가와트로 이 중 정보기술(IT) 기기에 쓰이는 전력량은 29.4메가와트다.

AI와 고성능 컴퓨팅(HPC) 환경의 높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게 특징이다. 각 층마다 4.2메가와트 이상 IT



엠피리온 디지털이 1일 강남 데이터 센터 그랜드 오픈 기념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송호준 대우건설 상무, 마크 푼 엠피리온 디지털 최고경영자(CEO), 정영준 서초구 부구청장,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더글라스 강 세레야 파트너스 파트너.

용량을 제공해 전체 12만대 이상 서버를 운용할 수 있다. 랙 당 10kW~40kW 이상 고밀도 랙을 지원하고, AI에 보다 최적화된 7~8층은 130kW 랙과 직접 수랭 방식 기술을 제공한다.

AI 데이터센터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전력효율성에도 강점이 있다. 이 데이터센터는 전력효율지수(PUE) 1.3 이하로 설계됐다. PUE는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사용량을 IT장비 전력 사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저전력 설비가 많을수록 1에 가까워진다.

서울 강남과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

접해 AI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이미 쿠팡은 서비스형 그래픽처리장치(GPUaaS) 사업을 위해 데이터센터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푼 엠피리온 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서비스 문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KR1 강남 데이터센터 준공은 한국에서의 AI 컴퓨팅 수요가 높아지는 시점과 맞아 떨어지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인기자 modernman@etnews.com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 코인 환전해 자본 유출 우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경계 메시지
“불규칙 거래 탐지 가능한지도 의문”

정부-여권,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
한은, CBDC 실험 중단... 고민 심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
아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자본 유출입 규제를 훼손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하
나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은이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며 공을 들였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까지 중단되자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총재는 1일(현지 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의 정책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핀테크 기업과 스테이블코
인 지지자들이 한국 정부에 은행이 아닌 기관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 달
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규제되지 않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경우 달러 기반 코인으로
의 환전이 촉진되고 이는 자본 유출입 규제를 훼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비판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불규칙한 거래를 탐지할 수 있다
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우리는 확
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에는 스테이블코인을 경
계하는 한은의 입장이 담겨 있다. 한은은 스테이
블코인이 기존 통화 시스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
편화할 경우 원화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은행의 신
용 창출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기
축통화국인 한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 자본 유
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 시

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은은
블록체인 관련 제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탓에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악용
될 가능성 등 결제·운영 측면에서의 위험도 내재
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
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경제 유튜브들과의 대화에서 공약으로 내세웠
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원화 스테이블코
인 시장을 만들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최대 블록체
인 전문투자사인 해시드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정
책실장을 발탁한 것도 정부의 도입 의지가 드러났
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한은이 추진했던 CBDC 도입은 표류
중이다. 올해 4~6월 7개 은행이 참가하는 CBDC

스테이블코인 둘러싼 정부 여당과 한국은행의 움직임

정부·여당

- 이재명 대통령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만들어야 국부 유출 막을 수 있다” (5월 8일)
-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발탁 (6월 6일)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기본법 대표발의 (6월 10일)

한국은행

- 이창용 총재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5월 29일)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인한 코인런 사태 우려’ (6월 25일)
- 이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하면 자본 유출입 규제 훼손 우려” (7월 1일)

? 스테이블코인

금,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 보통의 가상자산 대비 변동성이 낮아 결제나 거래 수단으로 사용된다.



시험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를 진행했
지만 은행권의 반발에 부딪혀 10월 2차 실험은 잠
정 중단됐다. 한은이 상용화에 대한 장기 비전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데다 7개 은행이 30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내역을

정부가 일일이 확인 가능한 CBDC는 이를 도입한
중국에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큰 흐름이기에 한은도 부분별하게 스테이
블코인이 발행되지 않도록 정부와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과열 주의보

올해만 275건 출원...주도권 경쟁
통상 상표 등록에 1년 이상 걸려
로드맵 없이 테마주 편승 우려도

정지권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자 업계 전반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상표권 출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에만 관련 상표 출원이 280건에 육박한다.

2일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상표 출원은 총 275건으로 집계됐다. 출원 기업은 23곳이었다. 모든 상표는 현재 '출원' 상태다. 통상 상표 등록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상표 출원은 토스뱅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비바퍼블리카(24건), 신한금융지주, 엔에이치엔케이씨피(이상 21건), 카카오페이(18건), 국민은행(17건), 하나은행(16건), 답마인드플랫폼(15건), 케이뱅크(12건), 중소기업은행(10건) 등이 이었다. 이 밖에도 이스트에이드, 신한카드, 미래에셋컨설팅, 토마토체인(이상 8건), 이나인페이, 형지글로벌(이상 6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출원이 이어졌다.

상표 출원이 몰리는 것은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상표권부터 확보하자는 분위기로 읽힌다.

상표 출원이 곧바로 사업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 양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올해 업종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자료:특허청 키프리스

다. 실제로 이날 형지글로벌은 상표권 출원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플랫폼 구축 소식에 주가가 30% 가까이 상승했다. 카카오페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에 지난달 26일 주가가 급등,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

일부 기업은 일찍이 상표 등록과 함께 실증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오픈에셋은 2023년 'KRWO' 상표 등록을 마쳤다. 같은 해 1월 카카오 계열사 크러스트 소속으로 핵심 기술인 '이중서명 기반 발행 시스템'을 확보한 뒤 은행들과의 개념검증(PoC)을 통해 기술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후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함께 실사용 기반의 결제 실증까지 완료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사 비덱스도 2023년 'KRW1' 'KRW-ONE' 등 관련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했다.

박유민기자 newmin@etnews.com

LG전자, 북미 AI인재 유치 행보 잇달아

CVPR 이어 테크 콘퍼런스 CTO 산하 경영진 총출동

LG전자가 북미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유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미에서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2주전인 13일에도 글로벌 최대 인공지능(AI) 학회 'CVPR 2025'에서 인재채용 행사를 열었다.

북미 테크 콘퍼런스는 LG전자가 해외 AI 분야 우수 인재를 초청, 회사 연구개발(R&D) 비전과 기술 리더십을 소개하는 자리다. AI

연구 기반인 수학·과학·공학 등 기초 학문 역량을 갖춘 AI 전문인력과 로봇, 데이터 사이언스, 통신, 전장 등 다양한 분야 우수 인재를 선점하려는 목적이다.

김병훈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 김원범 최고인사책임자(CHO) 부사장, 김영준 인공지능 연구소장, 백승민 로봇선행연구소장, 박인성 소프트웨어센터장 등 CTO 산하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김병훈 CTO는 기조연설자로 LG전자의 R&D 비전과 전략을 소개했다.

김 CTO는 "AI 등 급부상하는 메가 트렌드를 고려해 생성형 AI를 접목한 새로운 고객 경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메타, IBM,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등에서 AI 전문가로 근무하는 중량급 인재와 북미지역 우수 대학 박사 연구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2일 링크드인에 "미래는 심오한 과학, 혁신 기술, 인간적 영향력의 교차점에서 창조될 것이므로 LG전자는 지리적 경계와 학문 분야를 넘어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LG 북미 테크 콘퍼런스는 인재, 협업, 목적 지향적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자리였다"고 언급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올인원 로봇청소기 국내 시장현황 *자료: 업계 종합

시장상황	- 중국 업체가 시장선점 - 지나해에도 중국 로보락이 40%대 중후반 점유해 1위 유지한 것으로 추정
국내기업 진출	- 삼성전자 지난해 4월 '비스포크 AI 스팀' 출시 - LG전자 지난해 8월 'LG 로보킹 AI 올인원' 출시
전망	삼성전자, LG전자 각각 하반기 중 신제품 출시 예정



로봇청소기, 이번엔 안방 잡는다 삼성·LG, 신제품 개발 절치부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흡입과 물걸레 청소 기능을 모두 갖춘 '올인원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출시한다. 성능·보안 강화, 추가기능 탑재로 국내 점유율 1위인 중국 로보락을 제친다는 목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각각 '비스포크 AI 스팀'과 'LG 로보킹 AI 올인원' 신제품을 개발 중이다.

삼성전자의 2세대 '비스포크 AI 스팀'의 출시일정은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는

모습이다. 가전 신제품의 출시주기가 보통 1년인

만큼 업계는 지난해 4월 선보인 '비스포크 AI 스팀'의 2세대 제품이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LG전자는 지난해 8월 'LG 로보킹 AI 올인원' 출시 후 1년 가까이 2세대 제품을 준비 중이다.

출시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것은 두 회사가 로보락 제품을 뛰어넘기 위한 '업그레이드'에 공을 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삼성전자·LG전자의 출사표로 기존 로보락이 장악해온 국내 올인원 로봇청소기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예상됐다. '비스포크 AI 스팀'이 출시 25일 만에 누적 1만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후발주자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업계는 지난해에도 로보락이 40%대 중후반 수준의 점

유율을 기록, 선두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흡입력·사물 회피 등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제품과 차별화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로보락이 최근 양말 등 가벼운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 옮기는 '로봇팔'을 도입하는 등 경쟁사의 제품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소비자의 시선을 끌 새로운 기능탑재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제품 대비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되는 보안

**작년 첫 도전, 中 로보락 국내 선두 여전
하반기 출시 목표, 보안·안전 강화 기대**

·안전부문에서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 앞서

로보락은 사용자 정보유출 논란, 에코백스는 해킹논란이 발생해 보안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자체 보안솔루션 '녹스', LG전자는 LG 표준 보안 개발 프로세스(LG SDL)를 제품에 각각 적용하는 등 보안강화에 노력한다. 지난해 일부 중국 업체 제품의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두 회사는 신제품의 '안전성'도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안방시장'을 중국 기업에 내준 상황이라 삼성전자·LG전자 모두 절치부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오면 점유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

“스마트 팩토리로 나노기술 한계 극복 개발시간·시행착오 줄이고 품질 확보”

산업부문

정수화 LG전자 부사장

AI·IoT·로봇 등 신기술로 제조 혁신
정부 지원·대학 인재양성 힘 모아야

스마트 팩토리와의 접목으로 나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나노 기술이 10억분의 1m 수준의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제어는 물론 문제의 원인을 찾기도 어렵지만 데이터와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하면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수화 LG전자 부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제조 분야에서 나노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과 시너지 창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나노 기술은 초미세 단위로 소재나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제어하고 활용하는 기술이다. 소재·부품·장비 전반에 걸쳐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반 기술 역할을 한다.

정 부사장은 나노 기술이 가진 장점에도 기술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아 발전이나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워낙 미세하다보니 불량률 검출하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고,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 개발 시간이나 시행착오 발생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점 등이 단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조기술 혁신을 통해 나노기술 한계를 극복하면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나노기술의 개발시간과 시행착



정수화 LG전자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와 나노 기술의 융합을 강조했다.

오를 줄일 수 있고 품질 관리에 용이하다.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통한 생산 유연화, 품질 향상, 공정 자동화 등 제조 혁신을 통칭하는 용어다.

정 부사장은 스마트팩토리 발전에도 나노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를 활용한 통합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불량률 검출하고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양자컴퓨팅과 같은 나노 기술이 뒷받침 돼야 완전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 부사장은 나노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기술 융합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잠재력이 큰 과제를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대학은 디지털 트윈이나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보릿고개’ K배터리… 하반기 LG엔솔·SK온 방긋, 삼성SDI 삐끗

업체 3곳 2분기엔 실적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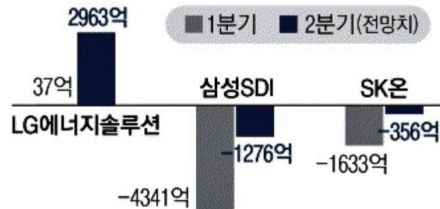
LG엔솔, 美서 신규 ESS 라인 가동
SK온, 현대차 美 메타플랜트 효과
삼성SDI, 고객사 매출 부진에 주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실적 전망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사 모두 올해 1분기에 비해 2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 삼성SDI는 실적 개선이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1분기 영업이익(37억원)에 비해 80배 불어난 수치다. 삼성SDI도 2분기 12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1분기(-4341억원)에 비해 적자 폭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에 따르면 SK온도 1분기 영업손실이 1633억원에서 2분기에는 356억원으로 완화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하반기 실적 전망은 엇갈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미시간주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라인이 가동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증권은 “북미 ESS 라인 가동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 선점 효과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배터리 3사 2025년 실적 및 전망
(단위: 원)



(자료: 금융감독원, 에프앤가이드, KB증권)

SK온은 2분기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메타플랜트’ 가동 효과로 북미 배터리 출하량이 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3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의 메타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현대차는 SK온 생산라인의 75%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최대 고객이다. KB증권은 “지난 3~4월 SK온 공장이 모두 가동되는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며 “올해 2~3분기 SK온이 미국 설비를 90% 이상 가동하면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삼성SDI는 주요 고객사들의 매출 부진으로 실적 회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영증권은 “중대형 전기차 판매 회복이 지연되면서(삼성SDI의) 각형 배터리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사인) 스텔란티스 차량 경쟁력이 떨어지면서(삼성SDI의 배터리)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며 “2027년 GM의 신규 프로젝트 배터리 양산 전까지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어려워보인다”고 내다봤다.

손지연 기자

LG U+ 마곡사옥, AI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AI R&D·서비스 기획 조직 집결
AI 개발시 고객 의견 빠르게 수렴

LG유플러스가 마곡 사옥에 '익시오' 등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조직에 더해 서비스 기획 인력을 전면 재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R&D와 고객 경험을 발빠르게 접목해 AI 품질을 개선시키려는 행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상반기 AI에이전트 추진그룹 내 AI·익시오 관련 서비스 기획 관련 조직을 최고기술책임자(CTO)와 R&D 조직이 있는 마곡 사옥으로 이전했다.

홍범식 대표가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잘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서비스 개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따른

조치다. 서비스 기획과 개발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시장 대응이 어렵다는 홍 대표 지론에 따라 마곡 사옥 이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로 익시오를 비롯한 AI 고객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카드로 해석하고 있다. 기존 통신사들은 거대 조직 특성상 R&D를 대부분 최고기술책임자 산하 연구소에서 진행하도록 기능을 분리해 왔다.

LG유플러스는 마곡의 R&D·서비스 기획 재배치를 통해 AI 서비스 대응 유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AI 사업부서에서 수요를 전달하면 서비스 기획자가 시나리오와 썬(실행장면) 등 요구사항과 고객반응(VoC)을 R&D 조직에 바로 전달하고, 발빠르게 실제 서비스 구현이 가

능하도록 체계를 갖췄다. 스타트업이 취하는 조직 운영 방식을 AI 서비스 대응을 위해 적용한 것이다. 기존 마곡사옥에 근무하고 있는 CTO 산하 R&D 조직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관련 사업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홍범식 대표는 '위닝 R&D'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차별적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홍 대표가 최근 마곡 사옥을 찾아 타운홀 미팅을 연 것도 이같은 조직 재배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마곡 사옥은 AI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AI와 관련된 R&D 등 업무를 집중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중소기업 판로 연다...LGU+, 오프라인 판매 지원

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협력

서울·부산에 전시 공간 마련

중기에 오프라인 판로 제공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과 상생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협업,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틈byU+'(일상비일상의틈)'과 특화 매장인 '일상의틈'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일상비일상의틈 3층에는 총 59개 중소기업이 만든 휴대전화 액세서리, 리빙 아이템, 뷰티 아이템 등이 전시된다. 부산 서면 소재한 일상의틈에는 4개 기업의 제품이 고객을 만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매장을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 강남역 '일상비일상의틈byU+'에 마련된 제품 판매 공간을 둘러 보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방문한 고객의 제품 체험 데이터도 분석해 중소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제품 개발·연구, 마케팅 방향성 설정 등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중

소기업 제품 전시와 판매 매장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커머스 'U+콕'을 통한 판매 지원도 이뤄진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쇼핑 플랫폼 U+콕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판매 수수료를 인하해 유통 부담을 줄였다. 중소기업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품을 노출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현승 LG유플러스 구독·오픈 플랫폼 담당은 "LG유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유통 기회를 얻고, 고객 접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상생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상비일상의틈은 LG유플러스의 도심형 복합문화공간이다. 2세대와 소통을 위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 전시, 체험 콘텐츠 등을 운영 중이다. 전국 28개 매장에서 운영 중인 특화 매장 일상의틈에서는 통신 상담 외에도 지역 맞춤형 체험과 제품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 **고재우 기자**



왼쪽부터 김용배 팬커뮤니케이션 코리아 대표, 장동천 제이디큐브릭 대표, 임유득 에이프레임 대표, 박애리 HSAD 대표, 이상훈 HSAD CX사업부문 부문장, 김동현 HSAD BX사업부문 부문장, 송광륜 HSAD CFO.

HSAD,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HSAD가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HSAD는 협약 체결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력사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며, HSAD가 별도로 출연한 '상생협력

기금'을 통해 협력사에게 교육, 복지,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전용 채용관 운영 △협력사 임직원 대상 교육 지원 △경영 컨설팅 및 성과 공유제 운영 △협력사 전용 복지몰 구축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김신영기자 spickyzero@etnews.com